

관련 자료 소개

1. 원문 자료
 - 『사안』의 주요 기고문 발췌
 - 일간지 자료
2. '싸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주요 회원 작품 소개
3. '싸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4. 참고 문헌 목록

원문 자료

『사안』의 주요 기고문 발췌

※ 본 참고 자료는 『사안』(4호-9호)에서 발췌한 주요 기고문을 옮긴 것이다. 원문은 당시의 표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안에 수정했다. 한자는 국문으로 표기하고 의미 전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에 병기했다. 원문 중 관독이 어려운 글자는 ■로 표기했다. 기호는 원문의 표기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통일했다.

〈 〉: 전시명, 행사명, 〈 〉: 작품명, 「 」: 논문, 에세이명, 기사명, 『 』: 서명, 잡지명, 신문명

『사안』 4호, 1964년 9월, 45-54쪽.

우리가 나가야나아가야 할 길이란?

전몽각

우리는 그간 개개인의 차이는 있었으나 주로 조형 위주의 사진을 작품화시켜왔다. 우리는 이런 사진에서 우리들의 예술로서의 가치관을 확립시키려고[시키려고] 노력하여 왔었다. 얼룩진 벽, 흑백의 형태만의 씨루엘[실루엣], 물속에 이그러진[일그러진] 초현실적인 자연상(自然像). 폐허에서의 추상적인 영상 이러한 등등의 '피사체'는 우리들의 조형이나 추상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별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다. 나 자신도 현실의 평판적인 전개나 자연주의적인 표현은 본능적으로 좋아하지를 않았[않]다. 자연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머리[릿]속에서 의식적으로 조작되는 추상에의 표현만이 더 깊은 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믿어왔다.

우리의 이러한 예술로서의 가치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싶지는 않다. 다만 우리는 사진을 떠나 보다 광의의 예술적 관념에 헤멘[헤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는 어떤 '디렘마[딜레마]'에 깊이 빠져 있는 것만 같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저명한 잡지나 연감을 뒤져보아도 우리가 좋아하고 집중하는 조형이나 추상적인 작품은 극히 드물다[드물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신통해 보이지 않고[않는] 작품들로 꽉 차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주류 속에 끼우지 못하고 방류 속에서 헤메이고나[헤매고] 있는 것이나 아닌가? 이것은 국제적인 '싸롱'이나 '콘테스트'에 한번 자기가 심혈을 기울인[기울인] 작품을 보내본다고 했을 때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곤 한다. 그러면 좀 더 사실적인 주제에 '카메라'를 대어 본다고 하자. 거기에서 나온 그럴싸한 작품이란 어떤 것인가? 이젠 또 이제 골동품이 되어버린 그 '리어리즘[리얼리즘]' 작품밖에는 안 된다는 평을 듣게 된다.

도대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란 어데[어디] 있는 것인가? 우리가 공부해야 할 사진이란 어떤 부류의 것인가? 이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고민은 아닐 줄 안다. 여기서 나는 이제

120년밖에 안 되는 세계사진사의 흐름 속에서의 현대사진의 방향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놀드 휘자[아놀드 하우스(Arnold Hauser)]'는 "기하학적인 문의[무늬]를 중심으로 하는 장식예술과 모방을 중심으로 하는 자연주의 예술의 어디에 예술적 표현의 기원을 구하는가에 따라 미학자나 미술사가의 기본적인 태도가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즉, '어떤 것을 보다 오랜 것으로 보는가는 미술사가나 고고학자가 전제주의나 보수주의로 기울어져 있는가 혹은 자유주의, 진보주의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휘자[하우스]'는 실제의 유물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서는 자연주의적인 예술양식 쪽이 오랜 것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실로부터 자연 그대로의 정확한 묘사 즉 자연주의가 인간의 표현충동의 본질이며 전부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경솔한 일일게다. 그러나 추상에의 욕구와 같이 재현에의 욕구(광의(廣義)의 자연주의)로 적어도 인간의 표현충동의 반구를 점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말 영국의 유명한 사진가 '피타[피터] 헨리 에머슨(Peter Henry Emerson)'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는 당시 영국 사진계의 주류이었던[있던] '[헨리 피치] 로빈슨([Henry Peach] Robinson)'이나 '레이란도(Reilander)[오스카 구스타브 레일랜더(Oscar Gustave Reilander)]'의 합성이나 수정사진술(修正寫眞術)에 대립해서 처음으로 자연주의 사진이란 언어를 사용했고 이것을 주장해온 철저한 자연주의자였다. 그는 1889년에 『자연주의 사진술』이란 책을 저술했다. 물론 '에머슨[에머슨]'이 여기서 말한 자연주의란 광의의 그것이며 당시 차고 노악(露惡)의 취미에서 나온 불란서 문학에서의 자연주의와 각별한 연대가 있었든[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카메라의 기능에 충실한 소박한 '리어리즘[리얼리즘]'의 주장이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합성이나 수정사진에 대한 Straight 사진의 주장이란 편이 정당하리라고 본다. 그렇다. '에머슨[에머슨]'의 자연주의 사진술이 미학으로서 는 유치하고 어딘가 모자라는 '리어리즘[리얼리즘]'의 주장이었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점으로 'Steichen[에드워드 스타이켄]'이나 '웨스턴[웨스턴](Weston)' 등 회화주의를 부정하고 사진의 기능과 표현성을 신뢰하는 Straight photography의 긴 전열(戰列)이 출발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 후 이 '에머슨[에머슨]'이란 사람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는 마치 미처[미처]버린 사람같이 자기의 이론을 전부 부정하고 「모든 사진가들에게」란 서한문 식으로 유명한 「자연주의 사진의 죽음」을 발표했다. 이것은 겨우 2년 후인 1891년의 일이다. 즉 그는 표현충동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하나의 반구 '추상에의 욕구'를 느낀 것이다. 그것에 따라 표현자의 개성이란 문제에 직면했으며 사진의 메커니즘[메커니즘]에 따른 큰 제약이 개성의 표현을 구속한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겨온 자연의 그대로의 재현에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에머슨[에머슨]'은 여기서 다음과 같은 비통한 고백을

했다. “사진술의 한계란……그 매체로서 예술의 수단으로서는 항상 어떤 예술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위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그 역시 사진적인 진실과 사진의 예술로서의 약점을 양심을 가지고 고민한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진표현의 주류는 이 ‘에마슨[에머슨]’이 부정한 의지와는 반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자연주의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글의 주제이다. 사진이 발명되고 그것이 실용적인 단계에 달했을 때에는 우선 초상사진가들에 의해 상업적인 효용성(效用性)을 가지고 전개되었고 그다음 단계에서 그 기록적 가치가 선진 사진가들에 의해 인식되고 기록 사진이나 뉴스 사진의 영역이 개척되었다. 그것과 시대적으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사진계에서는 다른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은 사진을 고상한 ‘예술’로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움직임이었다. 그 운동의 근저를 이르는[이루는] 것은 사진의 표현형식도 회화의 표현형식의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고방식이었으며 이것은 사진이 회화와 마찬가지로 이차원적 평면예술이라는 관점에서였다. 이러한 생각의 규정은 사진이 가지는 광학적, 물리적인 혹은 재현적, 기록적인 표현능력이란 것은 극도로 저평가하고 들었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출발한 고상한 예술사진은 삼류의 기술가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삼류의 예술가들은 이 새로운 사진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사진의 본질에서 떨어진[떨어진] 회화의 고급한 주제를 묘사해 볼려고[보려고] 들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반 대중이나 예술가, 미술평론가가 회화를 사진으로 사진을 회화로 판단 할려고들[하려고] 했었다. 이들의 사진가란 주로 화가에서 전향한 William Lake Price(1896)[와] 전술한 Reilander[Rejlander]나 Robinson 등이다. 그 후 만 레이(Man Ray), 모호리[모홀리] 나기(Moholy-Nagy, 1920) 등이 포토그램이나 몬타주[몽타주] 등의 표현기법을 발전시켜 반자연주의적인 사물의 표현방법을 사진의 영역에 도입해서 구성주의적 초현실주의적 내지 추상주의적인 작품을 발표했고 회화에의 경향은 정점에 달했었다. 이 ‘만레이[만 레이]’나 ‘모호리[모홀리] 나기’의 포토그램이나 몬타주[몽타주]의 기법이 근대 사진예술의 사적(史的)인 흐름 속에서는 방류(滂流) 속에 있다 하겠으나 표현형식에 뒤따라 등장한 신즉물주의를 기점으로 하는 ‘리얼포토’의 등장에 중요한 ‘모멘트’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이 새로운 예술사조는 우선 신즉물주의라고 불리우는[불리는] 운동으로 시작된다. 이 신즉물주의는 표현주의라고 불리우는[불리는] 운동에 대한 반전의 형식으로 생긴 것이다. 여기서 간단히 사진과 관련성이 있기에 표현주의의 추이를 설명해 둔다. 표현주의란 1903년경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이며 불란서의 야수파(휘-비즘)[포비즘(Fauvism)], 입체파(큐-비즘)와 상호[상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제1차 대전 전후 수년간에 걸쳐 전위미술로서 큰 역할을 했다. 이 표현주의의 생각 즉 미술사조는 우선 대상의 자연주의적인 외형 묘사를 배격한다. 눈에 보이는 자연의 사물이나 외형이 아닌 그 자연의 사물이 작자(作者)의 마음에 준 감동을 제

일로 하고 작자의 감동의 움직임대로 자연이나 사물은 주관적인 무형(無形)을 이룬다. 표현주의의 작가가 구하고 표현할려고[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아니고 자기의 개성 속에 있는 내부적 정신 그것이다. 이 표현주의는 제1차 대전 중에 있어서는 비교적 건전하게 유지되었으나 대전 후의 사회적 정세의 변화와 더불어 급속으로 변모해서 작자의 내부적 정신에 나타나는 환상감이나 괴기감(怪奇感)을 증가시켰다. 그것은 드디어 냉정한 비판을 받는 운명에 도달한다. 표현주의에의 비판은 우선 진실에 없는 공허한 자아주장을 [은] 무의미하다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서 마음에서 사물로 전향(轉向)이 행해진다.

열광적인 자기를 주장하는 표현주의에의 반동으로서 차거[가]운 현지적(現知的)인 사실주의-리어리즘[리얼리즘]이 대두한다. 이것이 신즉물주의이다. 이 신즉물주의는 미술운동에서 시작해서 문학의 영역에까지 퍼졌으며 사물의 리얼한 묘사, 보도의 중요성을 크게 크로스업[클로즈업]시키는 역할(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신즉물주의가 사진과 밀접한 필연성을 가지라는[가지는] 계기가 된다. 그것은 사물의 리얼리티한[리얼리티한] 묘사라는 점에서는 사진은 회화나 문학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표현 형식인 ‘리얼포토’가 생겨났으며 근대 사진의 주류를 이루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Straight photography[photography]은[는] 도큐먼트 포토그래피[포토그래피]의 근원이 된 것이다.

나는 여기서 미국의 사진평론가 ‘부루스 다운[브루스 다운즈]’의 말을 한마디 인용하고 이 글을 마칠까한다. “요사이 사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화가들의 흉내를 빌려고[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조형미술로서의 완전한 추상이나 구성은 사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최소한 표현능력을 제대로 가진 화가라면 보다 쉽게 보다 완전하게 이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유자재의 일이다. 여기서 사진가가 할 일이란 무엇인가? 사진가는 카메라라는 ‘메카니즘’[메커니즘]을 이용하는 일이다. 이것은 기가 막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육안마저 놓쳐버릴[놓쳐버릴] 엄연한 자연의 사실을 거짓 없이 정확하게 묘사하는 일이다. 이것은 제아무리 유능한 화가나 문인에게도 이러한 표현의 추종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참고자료

1. 사진에 있어서의 자연주의 리어리즘[리얼리즘] (吉村伸哉)
2. 사진 120년사 (田中雅夫)
3. 현대의 사진 (重森[弘庵])
4. 세계미술의 역사 (柳曉)
5. 예술의 교양 (福田)
6. 미학 (Denis Huisman)
7. 포푸라포토그래피[파퐁러 포토그래피(Popular Photography)] 연감(62년도)

『사안』 5호, 1964년 12월, 21-26쪽.

예술사진 시비

이상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단에도 소위 예술사진이라는 추상사진, 전위사진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예술사진에 대한 시비(是非)는 외국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다음에 소개하는 일련의 시비는 현대사진의 방향을 모색하는 외국 사진작가들의 이론으로서 매우 흥미 있는 발언이다. 어느 이론이 옳코[옳고] 어느 이론이 그른 지는 독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맡기기로] 하겠다.

(A 씨)

소위 추상사진, 전위사진이라는 예술사진이 범람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무의식 중에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암실 속에서 요술(妖術)과 같은 기교를 짜내어[짜내어] 추상으로, 추상으로 줄달음질 치고 있는 작가들에게는 이 사진이라는 용어가 오히려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닐까? 나는 여기서 사진 비예술론(非藝術論)을 끄집어낼 작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현시대의 젊고 유능한 작가들이 눈이 빨게서[빨게서] 추구하고 있는 예술, 추상[과] 전위 작품은 사진을 꼬끼리에 비유한다면 바로 그 꼬리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사진의 메커니즘(mechanism)에서 볼 때 꼬끼리의 몸둥이[몸뚱이]에 해당되는 것은 소박 순수한 의미로서의 사진일 것이다.

나는 예술사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그러한 것을 추구할 때에 자기는 지금 꼬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자각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진과 회화의 중간에 끼여서 몸부림치고 있는 예술사진이라는 기형아를 보고 있노라면 자기가 기형아라는 것을 모르고 어쩌나! 변화가 있지 않아! 새롭지 않아! 하며 뽐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 오히려 불상하게[불쌍하게] 여겨진다. 우수한 사진에는 꼬끼리에 반드시 꼬리가 있듯이 자연히 예술성이 부수(付隨)되어 있는 것이다. 예술성만을 추구한 작품에 사진이 부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꼬리에 꼬끼리의 저 큰 몸둥이[몸뚱이]가 부수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듯이!

(B 씨)

“예술사진은 꼬끼리 꼬리다.”라는 이론은 사진을 너무나 좁은 눈으로 본 것이다. 분명히 사진이라는 용어는 “진(眞)을 사(寫)한다”고 쓰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술사진은 사진이 아니라는 말은 너무나 자구(字句)에 구애(拘碍)된 좁은 견해다. 영화나 회화나 서도(書道)나 조각도 최초에는 기록을 위한 인간의 욕망에서 출발된 것이다. 현재 이것들이 예술만 추구하고

그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였다고 하면 조소를 면치 못할 것이다.

A 씨가 말하는 소박 순수한 사진이라는 것은 보도사진, 인물사진 같은 사실사진을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되며 여기에 자동적으로 예술성이 부수되어[되어] 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그럴 것이다. 그러면 그 부수되어 있는 예술성을 추출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벌써[벌써] 그것은 소박 순수한 사진은 아니다.

사진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사진을 매체로 해서 예술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사진의 초기는 분명히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었[었]고 오늘날 그 목적은 거진[거의] 완전히 기능을 충분히 살린 소박 순수한 사진이나 사진을 수단으로 한 예술도 다 같이 좋은데 사진의 세계를 넓히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진이 소박 순수한 의미, 원시적(原始的)인 해석에만 구애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야릇한 소화불량의 사진이나 되먹지 못한 추상작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도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발전해 나갈 것이 아니겠는가?

(C 씨)

사진도 다른 예술적 표현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장으로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주체는 자기주장이고 사진의 특질은 방법이나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진인의 표현욕망의 장르[장르]가 확대되어감에 따라서 카메라[카메라]나 필름[필름]의 처리방법이 발달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여기서 사진의 특질에 구애되는 나머지 표현욕망을 한정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A 씨의 과오는 사진의 특질인 사실성에 구애현혹(拘碍眩惑)된 나머지 사진의 근원이 되는 표현욕망을 한정코져[한정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실성은 오히려 제약이 될 수 있는 특질이고 이 사실성 때문에 자기를 상실할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제약을 초월할 수 있어야 비로소[비로소] 자기주장을 표표[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꼬끼리의 꼬리는 사진의 특질이고 본체는 우리들 인간이며 자기주장이 아니겠는가?

(D 씨)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사진이 예술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노릇이다. 사진이 반드시 예술이어야 한다는 이유도 발견할 수 없고 또 예술이어야 한다는 이유도 발견할 수 없고 또 예술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유도 없다. 예술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때에 따라서는 무슨 제약 속에서 어떠한 법칙 비슷한 척도에 의하여 제어[제어]되고 그 가치가 좌우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척도는 시대감각에 따라 신축(伸縮)하는 것 같기도 하다. 사진을 예술로서의 논의 속에 집어넣든[넣던] 집어넣지 않든[않던] 간에 사진 그것의 가치는

그 작품에 달려있을 뿐이다.

나는 작품에 대한 비판, 평론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작품 이전의 상태에 대한 비판은 사진론과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추상, 전위가 반드시 새롭다든지 [든지] 깊다든지[든지] 높다든지[든지]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거기에는 그만둘 수 없는 한 길로써 의의가 있을 뿐이고 추구할 것은 하나의 가치뿐이다.

사진을 코끼리에 비유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나 진실로 전위작품을 하고 있는 작가는 꼬리론자가 말하는 안이한 사고방식이나 원시적인 견해 같은 것을 벌써 오래 전에 졸업한 작가들이 아니겠는가? 사진의 여러 가지 길 중의 한길인 추상 전위를 기형아로 취급하고 잘난 체하는 것은 코끼리를 꿈무늬에서만 바라보고 왈가왈부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다. 전위이든 추상이든 사실이든 각자 목표하는 것은 사진을 통한 자기 추구이고 어떠한 하나에의 도달이 아니겠는가?

(A 씨)

사진의 특질에 구애되어[되어] 표현욕망을 한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추상사진이 그 짧은 역사를 통해 부정해온 회화적 표현기법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날 용납될 것인가? 에는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피사체와 작자의 이미지[이미지](Image)의 적확(的確)한 표현을 위하여 사진적인 표현기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극히 회화적인 표현기법으로 표현할 때에는 구태여 사진의 기술적 제약에 고심할 것 없이 차라리 회화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사진의 제약은 사진의 숙명이다. 사진을 만들기 위한 렌즈나 감광재료를 사용해서 사진이 아닌 다른 예술을 창조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진이 그 제약에 해방된 것은 아니다.

『사안』 6호, 1965년 2월, 57-61쪽.

현대사진연구회 개정회칙

[전문공고]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현대사진연구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목적

원문 자료: 『사안』의 주요 기고문 발췌

제3조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순수창작사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구성

제4조 본회는 AB= 개반(個班)으로 구성하되 A반은 작품수준이 향상된 자로 B반은 초보적인 입문자로 구성한다.

제4장 회원자격 및 임무

제5조 본회 B반은 본회 취지를 찬동하고 창작의욕이 왕성한 지식인으로 본회 A반원 2명 이상의 추천과 본회 임원회의 찬동으로 입회한다.

A반원은 B반에서 장기 연마한 회원으로서 지도위원부의 추천을 얻어야한다.

회원은 회합(會合)에 참석하여 회비를 납부하고 매 월례회에 작품 2점 이상을 지참할 의무가 있다.

제6조 본회는 하기(下記) 임원을 둔다.

- 회 장 1 명
- 총무간사 1 명
- 재정간사 1 명
- 섭외간사 2 명
- 편집간사 1 명
- 외국부간사 1 명
- 지도위원 약간 명

제7조 본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일 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 제1항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 제2항 -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서무 일체를 [를] 담당한다.
- 제3항 - 재정간사는 경리 일체를 담당한다.
- 제4항 - 섭외간사는 섭외사무 일체를 담당한다.
- 제5항 - 외국부간사는 본회의 국제관계 사무를 담당한다.
- 제6항 - 편집간사는 본회 기관지 『사안』 발행을 담당한다.
- 제7항 - 지도위원은 '싸롱 아루스' 회원을 추대한다.

제6장 재정

제9조 본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항 - 입회금은 이백 원으로 한다.

제2항 - 회비는 월 일백오십 원으로 한다.

제10조 본회 운영상 부정(不定)한 경비와 회원 친목상 필요한 경비는 수시로 거출한다.

제11조 징수된 회비 및 찬조금은 일절 반환치 않는다.

제7장 집회

제12조 정기 총회는 연 1회로 매년 1월 초에 소집하며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월례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후 6시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14조 간사회는 필요시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모든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모든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가결된다.

제16조 필요시 수시로 미술 강좌와 명작감상 급[및] 특수기법에 대한 연구발표회 등을 개최한다.

제8장 사업

제17조 본회 사업은 연1회 이상의 작품 발표전을 개최하며 대외적으로 본회 발전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제반행사를 계획, 실시한다.

제9장 상벌(賞罰)

제18조 시상

- ㉠ 월례회 - 우수한 작품 각 1점
- ㉡ 연도상 - 일 년 중 최우수작 1점
- ㉢ 공로상 - 본회 운영상 공로가 지대한 자

제19조 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한 자
- ㉡ 연 2회 이상 무단결석한 자
- ㉢ 연 2회 이상 작품 불지참자
- ㉣ 연 2회 이상 회비 미납자
- ㉤ 본회의 승인 없이 타 사진단체에 가입한 자

부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65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사안』 7호, 1965년 4월, 4-15쪽.

사진의 정의

이영훈 역, Bruce Downes

사진이란 자연으로부터 이미지[이미지]를 재현시키기 위한 정확하고 자동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화가들의 욕구에서 기원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다게르'(Daguerre) 자신도 화가의 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광대한 화폭에 지루하게 물감을 칠해야 하는 무한정의 고통이 없이 그의 투시화(透視畫)를 창조해야겠다는 꿈을 꾸는 것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시초에 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대용품이었으며 또는 예술의 일 편이기도 했으며 그 후 곧 대중화하게 된 도구이기도 했다. 그것은 사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술 창조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듯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사진이 탄생하는 그때부터 그림과 회화의 예술은 사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은 오해의 와중 속에서 그것들의 본성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렸다.

“사진은 과연 예술인가?”라고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문제는 혼동의 도가니 속에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은 시각적 통신의 매개체이다. 따라서 이 사진은 창작적 인간의 수중에서 이루어질 때 단순히 생활의 재창조와 같은 그러한 영역을 초월하는 이미지[이미지]를 구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예전에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세계가 사진에서 보여질[보일] 수 있다. 진실이 계시되며 평범한 것이 변형되고 생활이 해설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분명히 사진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은 화가들이 만드는 작품과 같은 유사한 종류의 예술이 된다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나는 생각된다. 이러한 혼돈은 보편적인 것이고 특히나 자칭 지각 있는 예술단체에 있어서는 더욱 확대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1961년도 『Saturday Review』의 「미술 속에 있어서의 사진(photography in the Fine Arts)」이라고[는] 기사 속에서 그 전형적인 표본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주(主) 기사를 통하여 그것은 선의적이고 혹은 당황하는 듯한 과제를 서술하면서 'Margaret R. Weiss'는 일면으로 사진가와 화가와의 차이점을 영점으로 축소시켜버리려고 기 획하고 있으며 카메라는 마치 예술가들이 붓 대롱이나 브러쉬[브러쉬]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진가가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중첩된 오류

이와 같은 오류는 『Saturday Review』 동지(同紙)에서 메트로폴리탄[메트로폴리탄] 예술 박물관의 사진 관리인인 'Hyatt Mayor'에 의해 더욱 과증하게 되었다. 이 관리인은 말하기를 “카메라와 부러쉬[브러시]는 모든 세대의 관찰 양식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거의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시대의 사진가나 화가도 서로를 유사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고로 'Jackson Pollock[Pollock]'과 'Eugene Smith'는 겉모양이 비슷한 형제나 다름없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명확히 말해서 사진과 회화를 서로 유사하게 보려고 하는 완고한 경향성은 결국 예술로서의 사진의 인식을 저평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예술 속에 있어서의 사진’ 운동이 가찬(可讚)할 만 하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사진에 대한 불길한 징조가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초현대적 매개체의 유일성을 이해하는데 오류를 범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미술 속에 있어서의 사진’이란 분명히 다양한 짜롱 타입[살롱 타입](Salon type) 사진의 콘테스트의 모양을 띤 제한적인 제재 활동으로서, 사진을 미술박물관으로 집어넣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며 모든 기획은 사진과 회화는 같은 본성의 산물이라는 것과 카메라와 부러쉬[브러시]는 같은 종류의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모든 박물관의 디렉터들이 모두 이러한 점을 시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 중의 몇몇은 그들이 그 공공연성(주지성)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과 회화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내심으로 용납하고 있는 것이다.

Bernard Shaw의 의견

‘버나드 쇼’는 두 매개체[매개체] 사이의 차이점을 시인하였으며 확실히 사진은 회화에 대해서 우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카메라는 손(手)이 없이 눈(目)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화가의 손이란 교정할 수 없는 기계적인 것이다. 그의 기술이란 극단적으로 인위적인 것이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와 같은 기술이나 손으로 그리는 것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은 기술적인 요건으로 인해 방해당하고 있지 아니하며 예술가의 감정에 대해 디자인에 있어서 보다도 예술가의 감정에 더욱 감응적인 것이다. “나는, 단색으로 자연의 무드나 양상을 구사하는데 목적을 둔 어떠한 방법의 ‘그래픽[그래픽] 아트(graphic art)’보다도 사진이 더욱 엄청나게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Bernard Shaw[Shaw]’는 영국의 『아마추어[아마추어] 사진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제도가의 작품을 흉내 내는 사진가[는] 마치 헛간의 잡음을 흉내 내는 사람이나 별다름 없다고 말하고 싶다. 그가 아무리 그러한 흉내를 잘한다 해도 그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은, 그 가능성의 한계로 한 번도 추구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한갓[한갓]

안이하고 한정되어 있으며 고갈된 방법으로 대치하려고[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는 예술의 낙오자이다. 그는 사진을 하는 동행인의 반역자인 것이다.”

60년 전 'B. Show[Shaw]'는 사진의 유일성에 대한 어떤 것을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오늘날 그가 살아있다면 'B. Show[Shaw]'는 ‘미술 속에 있어서의 사진’ 운동은 사진을 엉뚱당치도[얼토당토] 않게 회화의 주형 속에다 집어넣어 후퇴시키려고 하는 서투르고 [서투르고] 미련한 기도라고 비난하였을 것이다. 사진이 박물관에 전시되어서는 않[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진이 마치 회화와 같이 본질적으로 같은 종류의 예술품으로 전시되어서도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진이 마치 좀 더 고상한 예술의 빈약한 관계성과 같이 역지로 전시되어서도 아니 되는 것이다.

회화와 사진 간에는 그야말로 탐취(探臭)하도록 혁명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회화란 조각도 마찬가지로, 예술가가 때로 자연 물체에서 기원하는 심적인 개념 위에 토대를 둔 이미지[이미지]를 창조 내지 건설하는 방법인 것이다. 사진이 실제의 이미지[이미지]가 관계되는 한 본질적으로 ‘프로세스[프로세스](process)’인데 반하여 회화는 시간의 일정한 기간을 점유하는 진행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dward Steichen’은 말하고 있기를 “사진가는 화가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화가는 공백의 표면 위에다 복잡한 경로를 거쳐 항상 완전한 통제를 가하므로써[가함으로써] 그의 개념의 완성과 실현성을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진가는 완전한 이미지[이미지]를 갖고 시작하며 화가와 비교할 때 사진가에게 필요한 통제는 하등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방법의 차이점은 사실로 판이하기 때문에 그 결과적 효과 역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회화가 평가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사진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즉 사진과 회화의 차이점을 무시해버리려고 하는 것이며 사진을 엄청나고 불공평하게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회화를 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잘못되게 평가하는 위험성은 사진을 전적으로 회화의 미학적 원칙에 부합되게 보려고 하는데 놓여있는 것이며 순수하고 유일하게 사진적인 것을 부정하려 하는데 그와 같은 평가의 위험성이 놓여있는 것이다. 전자와 같은 경향성이란 사진가가 미리 예상한 구도나 디자인에 부합되는 주제를 공드려[공들여] 구상한 후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즉 사진가가 회화의 수법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정녕 화가를 추종하려 한다면 차라리 부러쉬[브러시]나 펜 혹은 엷칭[에칭] 끝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훌륭하지 않을까 한다.

모든 매개체는 각기 자신의 유일한 능력을 갖고 있듯이 사진도 역시 타(他)에서 불가능한 독특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즉 다른 예술로부터 그 특징을 뚜렷이 구별한 후 그 특징에 힘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진은 홀로 생활 속에 직접 침투될 수 있으며 시간의 의

미심장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진은 눈 깜박할[깜빡할] 사이이라도 그 능력의 한도 내에서 일어나는 세상 상태의 무엇이든 간을 막론하고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화학적 반응이나 즉각적인 빛의 단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랄 만한 연금술로 말미암은 근본적 성격으로부터 회화에 있어서 외는 전연[전혀] 다른 사진 언어가 뛰쳐[뛰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의미심장한 것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Cartier-Bresson은 말하기를 “인간이나 감정, 자세, 가옥, 물건, 분위기 같은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신속한 지각력과 숙련된 판단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세상의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가져오는 사진가의 수단인 것이며 또한 이러한 점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돌발적 순간의 포착

‘Aldous Huxley’는 California의 Sanford Roth 전시회 카타로그[카탈로그]에서 말하기를 “사진은 순간적이고 우연한 천계를 고정시키거나 돌발적인 미를 포착하는 것이다. 훌륭하지 못한 작가라도 때로는 훌륭한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연하게도 누르게 된 샷터[셔터]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화지 위에 나타나는 형상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깊고 ‘텍스투어[텍스처]’라든가 ‘톤’ 혹은 ‘콘트라노트[콘트라스트]’가 미의 어렵듯한 탁월한 심오성을 간직하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하겠는데 그것도 내면으로 그 작자는 미적 심미안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사진작가는 상상에서 얻은 이미지[이미지]를 완만하고 노력을 집중시켜 구축하는 화가의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화가는 그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변화시키며 재차 색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진가의 이미지[이미지]는 극단적으로 신비스러운 매력으로 인해 카메라의 메카니즘[메커니즘]에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하는 바와 같은 이러한 통제는 노출을 주기 전이나 후에 행해지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촬영된 사진 내의 물체를 재정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정적인 사진은 노출의 짧은 순간에서 본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뚜렷한 방법의 차이점으로 인해 사진의 본성이란 사실상 회화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 2가지는 도저히 동일시되어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진가는 노출을 주기 전에 스튜디오에서 적당한 재주를 부림으로써[부림으로써] 화가와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총명한 재주를 가진 ‘Irving Penn’은 이러한 사진가의 전형적인 표본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의 작품은 계획적이고 정묘하게 정돈된 미와 명료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은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로케이숀[로케이션](현지

촬영)이라 할지라도 실생활에서 오는 것이기보다도 인위적인 가공 작품이며 현대 사진이기에 앞서 19세기의 ‘이즐[이젤] 페인팅(easel painting)’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Irving Penn’은 그의 작품에다 화가의 수법을 가져 올리고[오려고] 한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의 대부분은 30년 전에 잡지를 지배하고 있었던 ‘pen & brush’ 삽화가의 뒤를 쫓는 상업 사진가들인 것이다. 화가의 수법을 쫓으려고 하는 것은 ‘포르렛트[포르레이트] 스튜디오’에서도 널리 전용 되고 있는 것이며 ‘[Yousuf] Karsh’는 ‘스튜디오’의 내부와 외부에서 화가의 수법을 추구하고 있다. ‘Karsh’의 포르레[이]트는 세심하게 조명되어 있고 연극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어서 원래 주제의 성격과는 부합되지 않는 위엄성과 장엄성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진예술의 방향

나는 또한 화가의 수법을 적용시키는 사진가에 대하여 명백히 설명하고 싶다. 이러한 작가들 중의 몇몇은 매우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예술로서의 그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단순히 그러한 작가 입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을 따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제물을 잘 정돈하여 의식적으로 신중하게 다루는 화가의 누법[수법]만이 사진가가 창작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화가가 창조하는 수법과 같이 사진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진예술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Huxley가 말한 바와 같이 사진의 창작성이란 관찰의 예술이라는 데에 있으며 인간 생활이 관찰하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승화 될 결정적 순간을 재빨리 이용하는 예술이라 할 것이다. 노출 순간에 작용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불충분한 이미지[이미지]는 인화 작업 중에 훌륭히 수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화 작업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한 사진작가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사진가들은 이러한 인화 기술도 완전히 체득하여야 자신의 이미지[이미지]를 완전히 표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사진 작품으로의 사진가의 접근이란 매개체[매개체]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며 근 25년간을 거쳐 감광물질이라든가 렌즈 카메라의 의외적인 발달로 말미암아 더욱 강화 육성되어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기계의 정려한 용이성으로 인해 사진가들은 초창기의 인위적 방해로부터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결과적으로 카메라는 인간의 눈뿐만 아니라 인간의 반응에도 그 범위를 확장시키게끔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카메라가 능숙한 사진가에게 그만큼 친밀하고 즉각적으로 응수해서 결국 사진이 생활과 가장 접근되어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사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떠한 매개체[매개체]도 생활 세계의 혼잡이나 혼돈을 처리할 수는 없다. 또한, 어

떠한 화가도 예민한 사진가의 카메라로 찍은 '인간 Kaleidoscope'에서 뽑아낸 예민하고 상세한 사진적 이미지[이미지]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지는 못한다. 카메라의 전반적인 발전은, 기록할 수 있는 이미지[이미지]의 밀접성을 꾸준히 증대시켰다. 카메라는 정물을 정돈하고 추상도 할 수 있고 구도도 잘 만들 수도 있지만 화가는 이러한 것들을 더욱 능란하게 할 수 있다.

우리들은 'Daguerre'의 발명으로 인한 사실주의에서 회화가 물러가 버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회화의 추상표현주의란 사진의 리어리즘[리얼리즘]에 의해 심리적 극단으로 몰리게 된 결과임을 누구나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술과 포토저널리즘[포토저널리즘]

사진의 본성으로 인해 오늘날 십중팔구의 사진작가들이 '포토저널리스트[포토저널리스트]'라는 사실은 그리 놀랄만한 것이 못 된다. 그 이유란 이 '포토저널리즘[포토저널리즘]'이 능숙한 작가들이 탐익[탐닉]하고 또 그 안에서 변창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풍토이기 때문이다.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생활의 각축장에서 부단히 투쟁하고 있어 그의 지각이나 반응을 예리하게 연마시키고 있다.

그는 사진 속에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이 '포토저널리스트[포토저널리스트]'들은 항상 예민하고 긴밀하고 수완 좋게 의미심장한 모멘트를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사진이 예술이라면 이는 즉각적 선택의 예술일 것이다. 그리고 이 선택의 예술은 화가들이 하는 수단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번에[저번에] 말한 바와 같이 그림을 그리는 동작은 세심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주관에 의해 변형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집중시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다. 외관상으로 본다 해도 가장 순수한 사진은 모든 그래픽[그래픽] 미디어[미디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다. 통일성이라든가 의미성, 질서, 긴밀도 그리고 발견까지도 극히 짧은 노출 시간 안에 현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이야말로 참된 사진가의 목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확실히 그것은 끝없이 어려운 문제인 동시에 능란한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자신이 창작적 예술가로 생각하는 사진가보다도 그 난제를 극복하는 데 더욱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포토저널리스트'들은 생활 그 자체와 부단히 밀접되어 있어야 하는 동시에 바로 이와 같이 지연되는 긴장 속에서 예술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 기사 속에서 번번히[번번이] 인용하고 있듯이 '예술'이라는 이 언어는 사진과 회화의 부정한 유대성을 항구화 시키므로써[시킴으로써] 사진에 큰 곤란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예술이란 회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날카로운 비판적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술의 관계를 투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진의 우월성에 입각하여 최소한, 사진가로서의 'Steichen'과 같이 예술 세계(회화)에

'아방가르드[아방가르드](avant-garde)'를 옹호하였지만 그의 작품의 대부분은, 그가 그 시대의 전통적 회화의 영향으로부터 그의 작품을 해방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 이유가 되겠지만, 시대착오적인 금일의 Victorian과 같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진 작품은 절대로 그림과 같이 보이지는 않는다.

사진이 회화에서 분리될 때까지 사진은 전통적 오해의 세계 속에서 투쟁하여 나갈 것이며 그런 연후에 사진은 자신만만하고 영광스럽게 그 자신의 토대 위에 일어서게 될 것이며 또한 미술이란 가식적 딱지가 필요 없고 사진을 옹호해주기 위한 박물관의 지원도 필요 없게 될 것이다. 사진은 박물관이 없어도 홀로 존속될 것이며 결국 계몽된 새로운 세대가 도래할 때 박물관이 사진이 없이는 도저히 존속할 수 없을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끝.

『사안』, 7호, 1965년 4월, 16-38쪽.

사진예술의 본질과 지향점(좌담회)

- 주 논제 항목
 - 一. 한국사단의 시발과 발전상 개략
 - 一. 회화(Painting)와 사진예술과의 동일성,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비교 고찰(사진예술의 본질)
 - 一. 앞으로의 사진예술의 방향과 문제점
- 주 최: 『사안』 편집실
- 참석인: 임웅식, 황염수(화가), 이형록, 김행오, 전몽각, 이상규, 이영훈
- 방청인: 현대사연 회원
- 사 회: 이창진
- 일시 및 장소: 1965년 1월 22일 하오 7~10시
충무로2가 "Salon D'alliance"

— 한국 사단의 시발과 발전상의 개략

임웅식: 해방이 될 때까지 한국인으로서 사진에 종사하시는 분은 극소수였으며 그것이 오늘날 현대 회원과 같이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 돈 있고 여가 있는 사람이 취미로 했던 것이니만큼 지금과 같은 수준에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적으로 예술적

하였다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새 경향의 작품들은 사단과 미술계에 물의를 일으켜 '크로즈업[클로즈업]' 되었고 현재 서울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강력하며 장래를 촉망할 수 있는 힘을 소유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63년 서순삼, 방대훈 씨들이 중심된 'C.F.C'와 용산에 사우들이 모여 '용산사우회'를 이룬 단체 등에서 각각 2회의 발표전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이 서울의 주요 단체[이]며 이제 지방 사단에 대해 언급한다면 사진 도시라고 불리우는 대구 지방은 지리적인 점으로나 기질 면으로 보나 가장 안정되고 발전도가 높은 곳으로 촉망과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라 봅니다. 또한, 뛰어난 작가들이 할거(割據)하고 있어 그 움직임이 활발하고, 다난, 다채로운 면이 있습니다. 해방 후부터 수많은 단체가 일어났다 스러지고[쓰러지고] 또 조직되어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현재 활동하는 단체로는 '대구사우회', '사광회', '신사회' 기타 몇 단체가 더 있는 모양이나 지성 면으로나 작품 수준 면이나 사업 면으로 보나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단체는 '조상민', '안월산' 씨를 중심한 '대구사우회'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국제싸롱'을 개최한 곳이 이 사우회이고 보면 그 적극적인 투지와 강력한 실천력엔 타 단체의 추종을 불허하는 잠재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통합령 공포 후 가장 상처를 심하게 받은 곳이 부산 사단이라고 봅니다. 또한, 단체 활동이 미약한 점이나 타 단체 활동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한 도시도 또한 부산이 아닌가 봅니다. 부산 사단의 작품 수준은 아직 '구 작가협회' 당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은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닌 상심합니다[성심합니다]. 현재 부산에선 정인성 씨를 중심한 2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동인회가 있고 '한국사진협회' 소속인 김광석 씨를 중심한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61년 혁명 후 군사정부에 의하여 취하여진 문화단체통합령은 과거 전국적인 성격을 띤 기성 단체는 모두 해체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한국사진협회'라는 단일 단체에 통합시켰던 것입니다. 정부에선 예술단체를 보호 육성기 위한 목적 하에 취하여진 것 같은데 그 운영 면에 원만(圓滿)을 잃어 지성적이며 실력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이탈하였고 그 분열상은 전보다 더 심한 결과만 초래한 것은 사단 장래를 위해 매우 유감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리하여 1964년 8월 말 서울, 대구, 부산, 대전, 등 100여 명의 전국적인 재야 사진작가들이 모여 '한국창작사진협회'를 결성했고 1965년 1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통영 등지서 창립전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동 '창협' 대표 위원장은 임응식 씨며 대표위원 정인성(부산) 조상민(대구) 제 씨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결국 단일단체의 꿈은 수포로 화(化)하고 전국적인 성격을 띤 2개의 단체가 엄연히 존립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단의 생태라고 단언해 말

할 수 있지요. 이상이 사진 단체 중심으로 대체로 본 6.25 이후의 사단이며 작품 경향으로 말한다면 6.25 직후엔 사실 묘사, 기록 보도를 위주로 한 보도사진의 풍조가 불기 시작해 1960년까지 그 전반으로 거의 사단적으로 일색으로 화(化)하다시피 되었는데 1961년부터 사진예술의 우월성을 더욱 인정하고 새로운 면에 눈을 뜬 작가들에 의해 인쇄물을 터전으로 하는 초기적인 보도사진은 보도사진가들에게 맡기고 보다 새롭고 다채성 있는 새 기법과 Idea를 써서 보다 심원하고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 회화(Painting)와 사진예술과의 동일성,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비교 고찰(사진예술의 본질)

황염수(화가): 사진에 관해서 잘 모르면서 외람된 것 같습니다만 사진과 회화가 제작 과정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사진은 회화보다 찍혀서 나올 때까지 제작 과정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화는 대상을 선택하는 것보다 제작 과정이 수공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또한 사진은 일단 선택해가지고 사진으로 나올 때까지의 제작 과정이 회화보다는 비교적 주관이 많이 가해지는 것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Shutter' 이전에 모든 계획과 구상과 주관적 Image가 정리 및 결정되는 것이므로 '샷다[서터]' 이전에 작품이 거의 완성되다시피 하지만 회화는 차수(差手)[착수(着手)] 이전의 Image와 계획으로서는 항시 모자라서 제작 도중에 많이 바뀌어지고 보충되어가기 때문에 제작 도중에 보다 훨씬 많은 주관이 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한층 외람된 이야기이겠지만 사진이 좀 더 현실의 논리성을 뛰어넘어서 찍히는 피사체의 지배를 보다 더 감소시켜서 보다 더 작가의 주관을 많이 가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어서는 피사체를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광선의 지배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니 작가의 주관대로 보다 더 광선의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사진과 회화에 있어서의 Composition의 설정은 양자 사이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아주 접근해 있다고 보며 화면 구성에 있어서 서로가 다 사각형 위에 구축하는 것이며 그 구축과 분할 및 꾸밈에 있어서 보다 더 존재감과 그 가치를 위한 구성법에 있어서 회화와 사진은 거의 같은 경지에서 연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사진과 회화는 Texture(촉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하겠는데 회화는 재료를 쓰는 데 있어서 촉감적인 면을 거루는데 사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Color 사진을 볼 때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Ansco나 Fujifilm이 하여 제조회사에 의하여 거의 일정한 색으로 좌우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색에 있어서도 작가 자신의 마음대로 그 Image나 감정 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좌우될 수 있도록 되며 보다 간편히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고 연구되었으면 합니다.

임응식: 지금 회화 분야에 종사하시는 ‘황’ 선생님의 말씀처럼 회화나 사진이나 모두 평면에 술이기 때문에 한 2차원적 평면상에 조형을 한다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회화는 하나하나 구축해가는 과정으로서 이룩되고 사진은 자연 속의 미적인 한 토막을 순간적인 선택과 Image의 정리를 통한 적취(摘取)에 의해 순간적으로 결정 및 제작된다는 점이 다르고 또한 ‘황’ 선생님이 얘기하신 ‘샷다[셔터]’ 이후의 주관 취입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몬타주[몽타주]’ 등 기타 방법에 의해서 못할 바는 아니지만, 사진의 본질상으로 보아서 후에 수공적인 면을 가한다는 것은 본도가 아니며 선택과 촬영까지의 예술적 행위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요, 회화는 제작 중에 많은 변화를 거쳐 다 그리고 난 뒤에 Sign 할 때에 비로써[비로소] 완성된다는 과정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서 회화는 창작된 작품이 단 하나인데 비하여 사진은 다량으로 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있고 또 회화는 단지 전람회나 그 외의 그러한 형식을 통해서 그 Original이 감상 및 전달되는 데 비하여 사진은 발표나 전달에 있어서 전시회의 과정을 밟기는 하지만 그것이 본래의 발표 도장이 아니고 인쇄 및 옵셋트[오프셋] 등에 의하여 즉 mascom[mass communication]에 의하여 동시에 장소와 위치를 막론하고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감상 및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행오: 저는 얼마 전에 말씀들 하신 ‘샷다[셔터]’ 이후에 관한 문제인데요. 물론 회화에 비해서 짧겠지만, montage 외의 여러 수단이 많다고 보는데, 예컨대[대] ‘샷다[셔터]’ 이후의 현상(Develop)에 있어서 입자를 굵고 거칠게 할 것인가 미립자로 해서 고운 입자로 처리한다든가, 또 이것을 Copy를 떼서 ‘미니 카피’ 적인 효과를 낼 것인가, 또는 반전효과에 의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게고 큰 것은 아니지만 인화지를 여러 호수 중에서 어느 것으로 보다 작가가 원하는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주관적 선택도 있겠고 그 밖의 ‘트리밍’ ■는 것과 그 외의 수다한 방법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보면 역시 수다(數多)한 주관 투입 방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 선생님께서 Subject의 구애를 너무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구애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관적으로 좌우할 수 없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좌우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

다시피 일례를 든다면 ‘광각 Lens’를 쓰느냐 ‘망원’을 쓰느냐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관에 따라서 ‘Lens’ 선택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Subject에 대한 구애라는 것이 역시 화가가 Painting 할 때 마음대로 전주(電柱)가 있는 것을 없앨 수 있드시[있듯이] 그것과는 성질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의미의 효과로 유사하게 주관적 효과를 낼 수 있다든가 특수 lens나 film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현실과 다른 작가만이 느낄 수 있는 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단이 사진에도 허다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그 구애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기의 Image나 ‘이즘’대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회화나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Color 문제인데요. 그 Color도 우리나라라는 19세기적인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film과 약품도 선택을 마음대로 못하지만, 세계적인 일반론으로 본다면 현상약을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고 현상약을 조제하므로써[함으로써] 색과 색감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한 가벼운 일례로서는 Tungsten type film을 Daylight에 쓴다든가 Daylight를 tungsten으로 쓴다든가 ‘쏘라리제이손[솔라리제이션]’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색과 색감을 천태만변하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론 우리 한국의 영역을 떠난다면 좌우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회화나 사진은 차이점보다 유사 내지 같은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차이점이라면 인쇄물로 했을 때 원화의 기분 그대로를 느낄 수 없는 회화와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의 차(差)라고나 할까요.

임응식: 그런데 사진의 존재가치라는 점으로 보아서 회화와 사진이 엄연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유사해지는 점이 많아지면 사진의 존재가치는 희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사진, 회화는 회화대로 독자적인 존재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므로 사진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이라 봅니다. 사진이 회화에 종속해가게 된다면 사진의 생명은 없다고 하겠는데 한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인 옛날에 회화의 흥내를 내므로써[냄으로써] 예술이 될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후기인상파’의 회화를 흥내 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도 그런 아류에 한 것을 했는데 그것은 ‘샷다[셔터]’를 누르[르]기까지 피사체 선택에 시간도 허비했지만, 그 뒤에 Deformation을 한다 혹은 부분부분 감력을 한다 또는 그 후에 유화 물감을 칠해서 강조할 때는 강조하고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하고 했는데 이것이 거의 회화적인 수공으로서 사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진예술의 발전상에 큰 장애가 된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주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위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사실 묘사를 혐오하고 그것을 약

화시키는 결과가 온다면 사진의 뚜렷한 존재가치가 약해지죠. 마- 이런 것은 삼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몽각: 구태여 '샷다[셔터]' 이후에 주관 투입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임응식: 그렇지요.

황염수: '임' 선생은 사진이 회화를 모방했던 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회화 역시 사진을 모방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결과가 예술적으로 정신적 밀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능력과 Image가 어느 정도로 화면을 구성하였는가? 에 있는 것이지 어느 것이 더 낫은[나은] 것인가 라는 우위성이라던가 어느 길로 꼭 나아가야 한다는 지정된 길은 예술세계에는 있어서도 없[안] 될 것이라 봅니다.

이상규: 어느 책에서 보니까 "회화는 사진적으로 보려 하고 사진은 회화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큰 잘못이다."라는 구절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회화적이건 회화적이지 아니건 자기의 Image를 형상화 하는 데는 회화적으로 해석하던 사진적으로 해석하던 어떻던[든] 간에 자기 주관에 맞는 방법으로 형상화 해 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사상이 남에게 전달될 것 같으면 되는 것이지 사진이라 해서 반드시 사진의 Process 안에서만 움직여야[움직여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임응식: 사진이던 회화던[든] 관계 없지 않느냐, 표현이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이상규: 다시 환언한다면 사진작가는 자신이 형상화하고 싶은 Image를 Camera로 표현하고, 화가는 붓과 물감, 그리고 캔버스[캔버스]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뿐이지 회화적인 해석을 했다, 회화적인 표현을 했다 해서 그것이 잘못 났[됐]다고는 할 수 없지요.

임응식: 잘못 났[됐]다고는 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진의 본도(本道)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생기지요. 즉 자기는 이 방향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문제지만,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진적이던 회화적이던 그 양자에서 나온 혼혈적인 예술이 되어도 관계는 없지요. 하지만 이것이 사진이라 할 때는 역시 사진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mechanism을 통해서 기록한다는 그 기록성을 전적으로 무시하다시피 한 것은 사진의 과정을 밟았긴 하지만 사진적인 본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이며 넓은 범위에서 인정할 따름이지 그것이 사진이 갈 목적이고 길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김행오: 사진예술이 갈 특징적인 길, 즉 왕도라는 것은 없겠지요. 거기에는 '이상규' 선생이 얘기한 그러한 부류의 사진도 회화에 가깝던[든] 아니던[든] 간에 작가의 표현하고 전달하고자[자] 하는 그것이 타 예술 그 무엇에 가깝든 간에 잘 표현되고 전달된다면 그것도 엄연한 사진예술이라 하겠는데, 어느 것이 정도고 어느 것이 정도가 아니라[라]는 것은 규정 짓기[짓기]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형록: 저로서도 사진의 특성만을 살린 것이 본다고 다른 것은 하나의 지열[열]이라는 이야기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 즉 real이 사진의 특성이며 타 예술이 추종을 불허하는 면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점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것을 고수하여 나가 이 길로만 나가야 사진예술의 정도를 밟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특성 자체가 예술성을 개재(介在)해 놓은 작품을 이룩했을 때는 그 자체가 예술성을 지닐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예술성의 농도가 보다 짙고 가치가 타도(他道) 보다 높다고는 단언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길만을 정도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응식: 그것은 오해인데요.

이형록: 얼마 전 '이상규' 씨나 '김행오' 씨가 말씀하신 바처럼 요는 작가가 어떠한 '장르[장르]'로 어떤 소재를 택하고 어떠한 기법을 쓰든 간에 그것이 회화에 가깝든 조각에 가깝든 또는 그 외의 무엇에 가깝든 간에 결과적인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논해야지, 이것이 수공적이고 인위적인 회화와 같은 인상을 주는 수법으로 했으므로 사진예술의 비정도 내지 사도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응식: 사도라기보다는 영역에 둘 따름이지 본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진이 왜 존재하는가를 또다시 보면 거기에는 기록성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록성을 떠나서는 사진의 존재 가치는 희박해집니다.

이형록: 그러한 기록성은 보도-사진가에게 마길[말길] 문제입니다.

임응식: 아-니. '기록'이란 것을 그러한 의미로서 생각지 마시고, 어떠한 대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즉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기록이지, 기록성을 보도-사진으로 논[논]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내가 말하는 기록이라는 것은 광의의 기록입니다.

이형록: 그런 광의의 의미를 지닌 기록이라면 좋지만 '임' 선생의 원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간에 작가가 어떠한 소재를 택하고 어떤 수법으로 자기의 Image나 주관을 처리하든 간에 그 작품의 결과적 산물인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논해야지 반드시 사실적인 기록성이란 문제를 개입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응식: 그렇지만 기록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몬타주[몽타주]라던가 그 밖의 방법은 사진의 진실성을 떠나는 것이라 봅니다.

이상규: 네, 사진에는 여러 분야가 있어서 사실적인 분야도 있겠지만 강한 주관을 표현하기 위한 어떠한 사진이라 할 것 같으면 회화적이건 회화적이지 아니던 다른 어떤 것이든 무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물 즉 피사체를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문제지 사실적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행오: 거기에는 이런 문제도 있겠지요. 그 시대가 사실적인 것을 요구했느냐 요구하지 않

있[았]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 앞으로의 사진예술의 방향과 문제점

임응식: 앞으로 사진예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작가 작가가 자기 사상에 따라 다를 것이고 표현하고자[자] 하는 사상에 따라서 방법과 대상도 다르겠지만 제 자신은 사진 표현 방식이 언제나 일정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표현 형식은 회화적인 평면이다 이루어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문학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 보다 더 고차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형’을 하기 위해서 ‘조형’을 했다가보다 조형적인 골격이 튼튼한 위에 내용적인 의미가 부여될 때 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놓여진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가 단일작품이 결작적인 의미에서 걸려 있는데 이것보다는 Story picture, 환연한다면 어떠한 한 Subject에 대한 자기 사상과 이야기를 충분한 표현 및 전달을 위한 복수의 사진 즉 이러한 사진전이 도래하여야만 한다고 보는데 외국에서는 벌써 그러한 과정을 넘어서서 오히려 결작적인 한 장 한 장의 개별적인 사진을 전시하는 데에 향수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많이 뒤떨어졌다고 보는데 적어도 개인전을 할려면[하려면] 한 테마를 내걸어서 그 ‘테마’ 하에서 전시하였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즉 한 테마를 깊숙히[깊숙이] 파고들어서 파고들어 간 자기의 해석을 작품화시켜서 나온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형록: 그러니 표현 양식은 구상적이고 하나의 사적이거나 또는 하나의 회화적인 것으로 다 루어진다고 하겠지요.

임응식: 어떠한 형태라도 좋습니다. 가령 ‘위장 크라인’이라던가 ‘멜시렘’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초상사진적인 것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아주 입자가 거칠고 ‘하드-톤’ 즉 흑백이 강한 ‘톤’으로 처리한다든가 효과를 내기 위해 [일]부러 Camera body를 떼다든가 피사체의 ‘뿌레[블러 blur]’ 같은 것으로서 필요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가령 작자가 불안한 현대에 고민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아름답고 Sharp 하게 해서는 이야기하고자[자] 하는 것이 표현되지 않으니까 그 표현을 위해 그러한 방법 즉 그러한 수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수법은 표현목적에 의해서 해야지 조형을 하기 위한 조형을 또는 떨기 위해서 떠는 것은 전연[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겠지요.

김행오: 그렇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황염수: 그림에 있어서는 ‘세잔느’ 이후를 볼 때는 문학성을 결여시키고 형식화를 파고들어

가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김행오: 저는 회화에 문외한이지만 회화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고적인 방향으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몬도리안[몬드리안]’은 시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칸딘스키[칸딘스키]’나 ‘폴락’의 경우처럼 색감적으로나, 감각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겠지만 무용적이고 내용적인 의미가 없는 작품들이 많다고 보는데요.

황염수: 그러한 경향은 미술사적으로 볼 때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실상 미술이 복고하지는 않습니다.

김행오: 네.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지는 않겠지요.

황염수: 그렇지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밟아가지고 양식이 바뀌지는 것뿐이지요. 그리고 지금 양식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지닐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형 및 발전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보다는 작가라면 현재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것을 만들어야겠지요. 반드시 시대적인 유행을 쫓는[쫓는] 것만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예술에 있어서 새롭다 또는 낡은 것이다라는 정의부터가 낡은 말이지요. 유행에 미쳐서 새롭다는 것은 생명이 짧기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에 철저한 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갈런지는[갈는지는] 현재로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 경향이 바뀌지기는 하겠지요.

김행오: 제가 하려던 말의 의도가 바로 그 말입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어떤 시기적인, 기록적인 것을 추구한 것만이 ‘정도’냐 자기 사상을 표현하기 위한 여하한 방법을 쓰든 간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높은 가치로 전달되면 바로 그것도 정도다 라고 하신 것은 ‘피카소’ 스타일의 그림이 정도라면 ‘몬도리안[몬드리안]’이나 ‘폴락’이 그린 그림도 ‘정도’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황염수: 그리고 작가는 전달의 존재도 의식치 않습니다. 전달은 자기에게만 충실한 것이죠. 그리고 타인에게 감명을 준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작가 자신이 용납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므로써[만들으므로써]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의 경지에 따라갈 뿐이죠.

임응식: 대중이란 각시(各戶)[가지] 각색이니까 적어도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대중이란 것은 자기와 비슷한 경지에 와있는 사람을 대중이라 하지요. 그 하부에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대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고 자아도취가 되어 전적으로 독선에 흘러 예술에 가져야 할 기본적인 논리성을 전혀 무시하고 어떤 ‘인스피레이션’만이나 구연성만을 기다린다는 등 딴 길로 나가는 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 창협전을 보면 대구에서는 다분이[히] 실험적인 작품이 많았다고 보겠는데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930년대에 ‘만리[만 레이]’ ‘모리나기[모홀리 나기]’ ‘바우하우스’ 등에서 흘러나온 ‘신즉물주

의' 혹은 우리 사진에서는 '신형사진예술'의 유행 시기에 많이 보았으며 일본에 가면 관서 방면, 대만 같은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그 사진들은 실험적이 아닌 것은 물론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진들은 1930년대에 사진예술이 '디렘마[딜레마]'의 장벽에 부딪쳐[부딪혀] 더 갈 수 없는 곳까지 갔었던 것이 이제 되풀이된다는 것이라 보겠는데 실험적으로 새 탈출구를 개척하려면 진정 새로운 경지를 찾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대구의 그러한 사진들은 새로운 하나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징조라고 생각하고 싶으며 앞으로 보다 더 참신한 실험적인 것을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회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화면을 찢는다 혹은 무엇을 그 위에 덧부친다[덧붙인다]...는 등의 것들은 사진예술의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안 된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확고부동한 사상을 통해서 해야지 회화의 모방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전연[전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일 동: 옳은 말씀입니다.

사 회: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체가 그렇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영국처럼 'Salon photo'를 지향하는 나라가 있듯이 'Real photo'나 '주관적인 표현들', 주로 한 경향을 국가별로 대체적인 분류는 할 수 없을까요?

임응식: 그런데 이런 게 있지 않아요. 객관을 주로 하는 경향하고 주관관을 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는데 우리 한국 경우에 있어서는 전쟁을 치루고[치르고] 나서 인생에 대한 혹은 사회에 대한 불안과 초조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6.25를 계기로 Realism이 대두됐[됐]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아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옷도스펙엘트[오토 슈타이너트]'라는 사람이 Realism에 대한 반기로서 'Subjective photography'라는 것을 주장해왔는데 그것이 하나의 예술화 되지 않고 화집 혹은 전시회를 했다뿐이지 그 후에 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계적인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혹은 표현방법이 주관관이 강하다 약하다-는 정도는 있을망정 그 사상은 Realism에 있습니다. 단지 형식으로 봐서는 '패턴'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재된 작가의 생리는 Realism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Realism이란 광의의 의미 속의 Realism이라 하겠습니다.

이상규: 한국 사단은 지금 '보수' 즉 현상 유지적 내지 복고조적인 사고방식과 '진진' 즉 현상 타계적 또는 혁신적인 표현활동과의 갈등 속에서 어떠한 전환을 이룩해야 할 시점에 처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세계에는 진보라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다만 변화뿐이다"라는 현대 예술사상에 입각해서 볼 때 일부 사진작가들이 "우리는 무엇인가 달라져야겠다. 혁신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

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아직은 한국 사단에 일대 변혁을 이르지[일으키지] 못하나마 과도기적 현상조차도 불러 일으키지[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상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은 이러한 주장이 아직 극히 희미하고 막연하며 진진적인 작가의 활동, 진출이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한국 사단을 보수적인 작가들이 강력하게 장악하고 그들이 '리-드'하여 왔으며 이들은 또한 '리-더'로서 가장 범하기 쉬운 최대의 과오 즉 사진예술을 단 한 가지의 '외골길'에 몰아넣어 버리고 말았기[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외골길'은 그런대로의 이론이나 체계가 서 있는 '길'이 아니고 다만 각자가 고집하는 각양각색의 아류에 불과한 것들이니 일부 똑똑한 신인들의 반항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신인들은 이들 노장을 우상과 같이 맹송하는 나머지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그늘에 가려져서 올바른 전망을 못하며 따라서 자기 방향을 결정[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은 오랫동안 회화의 뒤를 쫓으며 초상화, 풍경화, 정물화의 형식적인 모방에서부터 회화의 묘법까지도 모방한 시대가 계속되었는데 소위 '픽토리얼 포토'(회화적 사진)가 많은 변천을 역경[歷經]했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완전히 그 흔적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진을 한 장의 '그림'으로 감상하고 또 표현하려는 요구와 기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화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사진의 예리한 기록성과 독특한 시각을 선구자들에 의하여 벌써 오래전부터 관심을 모아온 것이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기록사진 내지 보도사진이 발흥함과 동시에 사진 본래의 '메카니즘[메카니즘]'과 표현력이 전면적으로 해방을 보게 된 것이겠지요. '렌즈'와 감광막의 급속한 발달과 극한적인 이용, 순간적인 기록, 새로운 시각, 거시적과 미시적인 세계, 미지의 물질세계의 발견과 같은 즉 물적인 기록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포토 몬타주[몽타주]', '다중노출', '네가티브' 표현, '포트[도]그램', '쏘라리제이션[솔라리제이션]' 등과 같은 사진의 소위 주관적 표현, 조형적 표현수법이 차례차례로 연구되고 이용되었다고 봅니다. 사진의 기록성은 철저하게 추구되었고 사회의 가장 예리한 목격자가 됨과 동시에 그것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잠재의식의 촉수가 되어 예를 들면 '슈어-리어리즘[슈뢰레알리즘]'과 같은 예술이 사진의 객관적 기록성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리하여 미완성인 사진의 미학을 객관과 주관이라는 인식의 미묘한 관계를 부단히 내포하고 있어 사진 표현의 예술성은 이 양극의 진폭 가운데에서 포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진은 '사실을 위한 사진'에서부터 '사진을 통한 표현형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보수적인 작가는 '사진이 사실을 벗어나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고 고집하는 것이고 진진적인 작가는 '사진은 표현의 한 가지 수단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만 사실을 위한 사진이라고 해서 바로 보수적 작품이다 또는 새로운 것이 못 된다, 창작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예술성이 적다든가 전위적인 작품이라 해서 바로 창작성이 강하고 높은 예술성을 지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헌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에서 헌것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술성은 헌것이다 새것이다 혹은 보수적이다. 전위적이다. 하는 따위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예술이 이렇게 다양각색으로 세분화 되고 그 분화작용의 울타리가 점점 높아져서 일견 가장 가까운 듯한 자매 부문에 대해서조차 완전한 이해를 갖기가 곤란해졌지만 그러메도[그림에도] 불구하고 사진예술의 창조가 반영하는 것은 역시 현대의 현실과 또한 현대의 정신적 상황[상황] 이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점점 세분화 되어 가는 사진예술의 배후에 어떤 공통된 현대 사상적 기반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또 거기에 부응하여 현대의 사진예술은 어떠한 미래를 예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예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며 행동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몽각: 사진이 고상한 예술이 되기 위해 그 표현 규범을 회화에 두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보며 또한 사진이 예술이기에는 너무나 현실에 충실하다는 즉 사진은 초점을 변화시키든가 로출[노출]의 가감, 암실 작업 등에서 다소의 조작은 할 수 있으나 대상의 취사선택이란 예술에 생명을 주는 소위 주관 투입에 있어서는 한정되[돼] 있으므로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던 시대도 지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사진예술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어느 외국의 평론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사용한 소설, 시 등과 같이 사진도 사진이란 기호를 최초로 찍을 때의 목적이나 찍은 사람에는 관계없이 또한 어떤 기록으로서의 아닌 모든 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소재로서[써] 사용되는 예술로 된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지요. 나는 이 말을 수긍합니다. 지난날의 《인간가 족전》이 그러했고 최근에 소개된 '마구남[매그넘]'에서 제작한 '지상의 평화'가 너무나 그러하다고 믿읍니다.

이형록: 우리나라의 미술계 전반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드시[있듯이] 사단도 역시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외국 사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겠지요. 그러므로 세계 사단의 조류나 동태에 따라 우리나라 사단도

서서히 변모해 나가리라고 보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세계 사단의 작품 조류나 형태가 금후 어떻게 변하여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 마디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사진예술이 초기에 있어서 어느 '이즘'이나 화풍을 무조건 추종하든[던] 시대는 지난 지 오래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사진의 발표 기반을 인쇄물에만 두고 그 위세를 세계 사단에 떨치든[떨치던] 보도성을 띠운[띠운] 사실적인 작품만이 사진의 전부로 착각하고 누구나 흉내 내려고 애썼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 단지 현실 묘사에 치중한 '뉴스'와 같은 것만 전달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훌륭한 예술성을 표현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지요. 즉 사진에 여러 가지 특이한 요소들은 타 미술에 비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품으로서의 사진' 즉 '예술로서의 사진'이라는 새 경지를 개척하려는 경향이 도처에서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분야에 있어 다양성을 띠우고[띠우고] 있는 것이라 봅니다. 또한, 각 분야마다 다채로운 특수 표현의 방편으로 항상 새로운 표현의 작품을 제시하여 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싶군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의 사진계입니다. 오늘의 모든 예술 분야의 총 본산이며 사진에 있어 더욱 그러한 곳이 미국임에는 의심치 않겠지요. 즉 보도사진의 아성인 미국 사단 심장부에서 몇 해 전부터 '예술로서의 사진'이라는 새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메트로폴리탄]' 근대 미술관에서 해마다 이런 취지하에 세계적으로 수집된 작품들이 환영리에 전시되고 기타 외국 중요 도시 등에서 순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진(眞)'을 사(寫)하는 것이 사진이다라는 묘사, 기록, 전달의 특성을 정의로 알든[던] 통속적인 관념에서 오늘의 사진은 '예술성을 표현해야 한다'는 차원이 높은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사진이 기계적인 묘사나 전달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주관적인 예술의 표현 방편으로 구사될 때 그 방법과 효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리만치 다양성을 띠우고[띠우고] 발전해 가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묘사에 치중한 사실파에 속하는 사진가들은 말하기를 "사진이 아무리 있는 기법을 다 동원해 보았자 제한을 많이 받는 탓으로 도저히 타 미술과 대적할 수 없는 약한 입장에 있다"는 비관론으로 그러므로 절대 우위적인 사실 묘사나 기록성을 심분 발휘한 무기로만 대항할 수 있다는 사실파의 지상론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사진이 그 제작 과정상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자가위축증(自家萎縮症)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나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은 비록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용한다 해도 그 방법과 형태나 효과는 얼마든지 다양성과 다채로움을 발휘할 수 있는 점

을 알아야[알아야] 하겠지요. 이것은 현대과학의 산물인 메가니즘[메커니즘]에 발전도에 의해 우리가 상상조차 못 할 경지에까지 그 표현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를 통하여 미래 역시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오히려 타 분야보다도 날로 새로움을 발휘하는 우위에 선 입장을 자부하고 자랑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나라 사단에 대한 전망을 몇 마디 말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해 전부터 몇몇 작가들에 의해 '사단에[의] 예술성'에 대한 자가 비판적인 태도로서 새 경향의 작품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고 현재는 신진작가들에 의해 이 같은 사풍(寫風)이 파급되어[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조형성 강조, 추상, 반추상 등의 작품 경향이라고 하겠지요. 이것은 10여 년간 한국 사단에 거의 일색으로 만연되어 있는 사실과 조류에 대한 일종의 염증을 느낀 데서 출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즉 내용 면만을 치중한 보도사진이 15년 전이나 5년 전이나 현재나 천편일률적인 스타일을 탈피 못 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기도 한 것이라고 봅니다. 동일한 무대에서 동일한 세리프[셀프]에 의한 것을 배역만 바꾼 연극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와 비슷한 작가들의 안이하고 얕은 지성과 빈약한 예술관은 사단 발전을 저해하며 타 미술계 인사들의 비난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대상을 우롱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요. 이러한 만성 고질병에서 탈피하여 사단은 조형예술이며 시각예술인 점을 재인식하고 즉 '미란 무엇이나?' 하는 근본 문제와 '사진작가는 어떠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자아 반성과 세계사단 움직임에도 주목을 기울이지 말아야[말아야] 하겠지요. 현재 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 젊고 신진인 작가들의게[에게] 파급되어[가]므로[감으로] 그 성취가 극히 주목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불원(不遠)하여 크게 나누어 '사진과의 주관적 추상파'의 두 개의 분류로 사단 형성이 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형태의 새 조류이나 사풍이라도 문제는 앞으로 발전일로를 지향하는 밝은 전망이 보이느냐? 하는 점에는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큰 난점이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본격적인 예술 활동으로 파고들어 갈수록 그 심도는 더욱 깊어지고 어려움이 가중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뒷바침[뒷받침]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보도사진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일로에 선 근본 원인도 그것을 소화할 만한 시장이 결여되어 있는 탓이라고 하겠지요. 또한, 오늘날 사단 기반 자체가 아직도 원시 형태를 탈피 못 하고 있는 점도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야말로 과거나 현재에 있어 작가들이 항상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직

접적으로 중대한 관련[련]을 갖은[가진]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면이 아직도 불안한 상태에 놓인 현 실정 하에서 사진예술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여건들이 호전되고 일반 국민들이 예술에 대한 애호 정신과 이해가 깊어지므로서[깊어짐으로써] 즉 민도(民度)가 높아질 때 예술 분야의 개화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같이 모든 면이 극히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예술이 오늘 이만큼이라도 발전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지요. 이 땅에 있는 개척자적인 정신과 자아 희생을 감수하는 이것은 인내와 용기를 지닌 작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필자[자]의 견해로서는 이 같은 신념과 정열을 가진 작가들이 살아있는 이상 사진예술은 완만한 거름[걸음]일망정 과거보다는 다소 밝은 면으로 또한 조류에 있어 다양한 '장르[장르]'와 표현 기법의 다채로운 형태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며 또한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안』 8호, 1965년, 106-116쪽.

‘안이한 형식과 내용만 되풀이[되풀이]’ … 만네리즘[매너리즘] 탈피엔 노력과 큰 자극이 … 《제1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심사후기

이형록

사실적인 기록성을 사진의 본도(本道)로 삼고 현실 인간생활 묘사에 중점을 둔 '리얼리즘파'가 초기 성행한 상황 묘사나 뉴스 전달 같은 가벼운 보도성을 띤 기록은 신문 사진기자들의 작업으로 돌리고 보다 인간의 내면성 추구하고 휴-머니즘 즉 인도주의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남에게 공감과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려는 것이 오늘의 사실주의파의 경향이라고 한다면 이번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에 출품된 500점에 가까운[가까운] 작품들은 너무나 거리가 먼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입상작이거나 입선작에 있어서도 안이한 형식과 내용만 되풀이[되풀이] 한 과거류(類) 이작[이하]에 일관된 감을 심사위원 전원 이 공명한 바이다.

해마다 열리는 동 '콘테스트'가 발표 기회가 극히 적은 '아마추어' 사진가들에게는 하나의 흥분과 자극이 되는 행사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며 또한 사단에 기여하는바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질적 면에 있어서는 향상보다 오히려 후퇴하여 가는 감은 무슨 까닭일까? 창의적이며 주관적이 강한 역작을 시도해 보려는 흔적은 어느 작품에서도 찾

어[찾아] 볼 수가 없다. 수법이나 기교면에 있어서도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다. 물론 《동아콘테스트》에 응모한 몇몇 작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초보적인 신인 층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리얼리즘[리얼리즘]’ 조류에 작품이 처음 대두되든[되던] 약 30여 년 전 작품들이나 우리나라에 도입되든[되던] 약 10여 년 전에 유행하든[하던] 류에 비해 조금도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일까[것인가]?

그런데 이와 같은 ‘만네리즘[매너리즘]’ 상태가 이번 《동아콘테스트》에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여러 해 전부터 우리나라 사진작가 대부분이 빠져버린 함정이고 이것의 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판단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 근원[이] 되는 원인을 규명하고 타개 방안을 모색해 봄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

첫째로 중요한 원인은 작가들 자신의 태만성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의 ‘과일’ 나무가 땅에 심어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가 기우린[기울인] 남모르는 수고는 입으로 다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춘하추동 여러 해에 걸친 온갖 노고와 피땀 영근 노력의 대가로 얻어진 결과라고 할 것이다. 과물(果物) 나무 한 그루를 가꾸는데 있어서도 이 같은 노력과 인내가 지불되어야만 이루어지는 법인데 하물며 가장 어렵고 힘든 창작의 열매를 얻으려면 그 지불되는 대가란 결코 여기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을 작가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단에선 작품에[을] 향한 정신적인 무장이나 근본적인 마음의 바른 자세를 갖춘[가진] 작가를 찾아[찾아] 볼 수가 없다. 날로 발전하는 현대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의욕적이며 진지한 태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저 무조건 남의 것을 추종하거나 흉내 내는 것을 일삼는 무기력한 안이감(安易感)에만 사로잡혀 버리고 만 것 같다. 마치 싸기[싸이] 트기도 전에 뿌리가 썩어 비틀어진 거와[것과] 같은 것이 특히 젊은 층 작가들의 정신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단 장래를 위하여 대단히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늘의 작가들은 마치 수박 ‘겉핥기[겉핥기]’ 식의 작품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겉만 핥아[핥아] 보았자 수박[수박] 맛을 알 수는 없다. 탄탄하고 두꺼운 껍질을 쪼개고 그 속 깊은 곳에 무르익은 속살을 도려내어 씹어 보아야만 그 진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진작가들도 탄탄하고 두꺼운 ‘만네리즘[매너리즘]’이란 장벽을 깨뜨리는 일이 먼저 앞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작품의 진미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깊고 기묘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껍질을 쪼개는 일이란 결코 쉽지가 않다. 그것은 심혈을 기우린[기울인] 노력의 대가가 지불되어야만 되는 것이므로...

둘째로 사실적인 기록성을 사진의 정도(正道) 내지 생명으로 여기고 신봉하는 지도층 인사들의 책임이 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길만이 사진의 유일한 길이요, 절대적인 가치로 확신한다면 그 방향과 진수를 작품을 통하여 역설했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사고방법이나 작품 수준은 아직도 ‘리얼리즘[리얼리즘]’이 대두되든[되던] 초기시대에 놓여있으면서

말만 가지고 행세하려는 태도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가 없다. 아무리 천언만구(千言萬句)의 미언여사(美言麗辭)를 늘어놓아 보았자 그것은 한낱[한낱] 허공을 향한 반응 없는 공포에 지나지 않을 까닭이므로...

이념 자체의 권위를 세우는 길은 실천적인 작품 활동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시범적인 행동이 꾸준히 계속되었다면 많은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고 일본의 젊은 보도 사진가인 桑原[구와바라] 따위가 비싼 “한국의 보도사진은 일본에 비해 반세기 뒤떨어졌다”라는 방자하고 모욕적인 말이 나오지는 않았[았]을 것인 줄 안다. 그러므로 지도층에선 작가들의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크며 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인 줄 안다.

이상은 일반 작가들과 지도층 인사들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하였으나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주최 당국에서 획기적인 묘안을 실시하여 준다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가져] 오리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서 시상에 있어 전보다 훨씬 매력적이며 자극이 큰 분량을 내 거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본래 ‘콘테스트’ 자체의 성격을 보아 상에 대한 매력과 자극이 좌우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인 까닭이다. 특히 쟁쟁한 중견층 작자층의 출품의욕을 고무케 하는 역할도 절대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번 ‘콘테스트’ 출품자들을 일견(一見)하여 보면 그중 몇몇 작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보적인 아마튜어[아마추어] 일색으로 되어버린 것 같다. 사실상 초보적인 아마튜어[아마추어]들에게 역작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주문이 아닐 수 없다. 중견층은 외면 또는 양보를 하고 마렀[말았]다는 것은 그만큼 흥미를 잃었다는 태도로밖에 해석이 안 간다[된다].

미국의 『포퓰라 포토그래피[파퓰러 포토그래피(Popular Photography)]』지의 콘테스트는 일도(一度)[일석]상이 미화 2,000불이고 그 외에 미국의 초대 여비 일절 부담의 대접을 받는다. 『U.S.Camera』지 콘테스트에 일석상은 최신형 자가용 자동차 일대와 세계 일주 항공 여행 비용 전담이란 막대한 대접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동등한 상을 걸라는 주문은 아니다. 《동아콘테스트》상이 타 부문인 (예(例) 소설이나 문학작품 등) 행사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다는 것은 시정하여야 될 것인 줄 안다. 아무리 적은 상이라고 하더라도[하더라도] 일석상쯤은 사진가가 애용하는 고급카메라 1대와 부속품 1 세트[세트]대에 해당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예 M3 카메라 신형 1대 및 부속품 시가 약 30만원 내지 40만 원)

둘째로 작품 규격 제한은 ‘콘테스트’ 발전상 지장이 큰 것인 줄 안다. 《동아사진콘테스트》가 간행물 출판을 위한 공모가 아니라 전시를 위주로 하는 성격이니 만치[만큼] 전시 효과를 무시하는 처사란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다. 작품이란 그 자체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적

당한 규격으로 제작되어야 효과를 거둘 것인데 천편일률적인 동일 사이즈로 제한한다는 것은 작품효과로 보다 다[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최 측은 양적인 점을 고려에 넣은 모양인데 작품이란 어데[어디]까지나 질적인 면을 치중해야만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지 태작(駝作)만 쏟아져 들어와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며 사단에 기여하는 의의조차도 희미해지는 까닭이므로 지나친 기우는 불필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도 앞에 말한 상제도에 매력이크면 양은 규격을 자유로히[자유로이] 하드래도[하더라도] 압도적인 수를 점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바이다.

셋째로 참신한 심사진(審査陳)의 구성문제이다. 이번 심사를 맡어[아] 본 한 사람으로 이런 제언을 한다는 것은 축스러운 발언일지 모르나 사단 대부분의 중견층 작가들의 요망이며 또한 작품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도 심사원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 ‘옳바른[올바른]’ 선정이 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사원은 사단적으로 큰 죄화(罪禍)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야기될 여러 난(難)문제들 그리고 이 같은 점이 시정되지 못한 채 계속된다면 작가들의 실망과 외면, 내경(乃經)에는 그 행사에 권위마저 잃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사위원이란 언제나 실력 있는 유능한 인사들을 기용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 바이다. 이제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에 전시된 작품 중 몇 점 인상에 남는 작품을 추려 단평을 가하여 보기로 하겠다.

〈격투(激斗)〉(특선) 서선화

소재나 화제(畫題)로 보아 투우(鬪牛)들에 힘의 대결로 숨 막힐 득[듯] 격렬한 투쟁을 표현했어야 할 것인데 작자는 고의적인 카메라 ‘부레[블러(Blur)]’ 수법으로 흐리고 약화된 환상 같은 표현을 시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우공(牛公)들 스스로의 움직이는 상태가 오히려 동감과 박력을 줄 수 있었겠는데 의식적인 기체유동(機體流動)으로 화면 전체를 움츠[움직]였다는 것은 졸렬하기 짝이 없다. 어느 기법이든 적소(適所)에다 적용하여야지 난■해서는 도리어[도리어] 해가 되는 수가 많은 것을 작자는 알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제를 약화 식힌[시킨] 맥 빠진 효과밖에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겠다.

〈내 것 사이소〉(준특선) 허치권

노변 상인 아낙네들의 생존경쟁의 심리표현을 해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고기 한 마리 식[씩] 들고 서로 다투어 자기 것을 팔려는 아낙네들의 모습 그들이 이룬 삼색 형태도 자[재]미 있고 의복[이] 갖고 있는 톤의 변화도 좋다. 배경의 단순화도 효과를 보았으나 행인을 등장 시킨 것은 서툰[서툰] 솜씨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극히 상식적이며 의식적인 냄새를 면할 도리가 없게 되었[었다]. 아낙네들만 가지고도 충분한 것이다. 카메라 앵글도 좀 더 정면에

서 아낙네들을 화면 가득[가득] 차게 구성 하였드라면[더라면] 효과는 판이하였으리라고 생각한다. 처리에 따라서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었는데 그저 가변운[가벼운] 스냅[스냅] 형(型)에 빠지고 말어[말아]버린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떠나시던 날〉(준특선) 송호창

사제지간의 이별의 애석함을 그린 작품이다. 체자로써[로서] 또는 친딸과 같이 가르키고 [치고] 키워온 어린 학생들을 두고 떠나는 여선생의 마음이나 스승으로 또는 친어머니같이 보살펴주든[주던] 선생을 보내는 여학생들의 마음 아픔이 울면서 걸어가는 무언의 행진 속에 충■[만]히 넘쳐흐른다. 물론 보도성을 떠운 스냅[스냅]이지만 작자는 주제 강조에 대담하고도 적절한 ‘앵글’을 택했고 화면 전체에 감정통일을 기했다는 점은 훌륭한 솜씨라고 보겠다. 이 인간미 담간[담긴] 애정의 행렬은 흥미와 공감을 갖게 한다. 그러나 난점은 화면 전체의 톤의 변화가 결(缺)한 점과 실조(失調)에 가까운[가까운] 인화처리(인화처리는 너므나[너무나] 소홀하여 손해를 보았다.

〈빛〉(가작) 최민식

어두운 성당 안에 높은 들창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한 줄기의 빛, 거기에 부각된 성직자의 뒤[뒷]모습! 마치 드라마틱한 어느 무대 면을 보는 감이 난다. 주제 선택이나 화면 처리의 능숙함, 톤이나 인화처리에 있어 별반 나무랄 데가 없는 세련된 역량은 보이거나 어텐지[어딘지] 구태의연한 싸롱 픽취[살롱픽처]적인 뉘새요, 의장(衣裝)을 벗지 못한 점은 숨길 수 없다. 이런 소재는 보다 깊고 알찬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작자는 지나친 형식주의와 빛의 유희에만 도취되어[되어] 보다 중하고 깊이[깊이] 표현해야 할 인간 내면 묘사를 소홀히 다룬 데[에서] 오는 경박감이 아닐까[아닐까]? 작자 최민식 씨는 이번 콘테스트에 20여 점을 출품하여 그중 10점의 입선작을 거둔 출품과 입선율에 기록을 세운 작가이다. 누구보다도 욕망이 강하다. 성의와 노력이 대단한 것은 놀랄만하다. 그러나 욕망만 앞세운 대량 생각보다 작품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초 공부가 먼저 앞서야 되지 않을까? 본다. 아무리 뛰어난[뛰어난] 수재인들 문제작이란 한두 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 한두 점 제작에 온갖 정열과 노력을 집중 식혀야[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한두 점으로 결정타를 쳐야 할 것이다. [*]이란 그 만큼[만큼] 힘의 분산으로 약화를 말함이고 한 점도 뛰어난 것을 만들 만한 걸작이 되어[되어]있지 못한 증거라고 하겠다. 그럼으로[그러므로] 동일한 곳에 수십 점을 응모했다는 사실은 작자 자신의 불안과 초조한 자신 없는 실력과 태도를 입증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가질 안는다[안는다]. 고언(苦言)을 드려 미안하나 작자는 누구보다도 ‘만네리즘[매너리즘]’ 장벽에 부딪쳐[부딪혀] 고민하고 있고 또한 탈피하려고 애쓰는 흔적이 엿보이는

까닭이다. 작자가 이 난경을 돌파한다면 놀랄만한 수작을 제작할 수 있는 의욕과 정열을 소유하고 있는 기대되는 신인임으로[이므로] '혹평이 양약의 역할'이 된다면 오히려 다행할 것으로 생각되어[어] 기탄없는 말을 드린 것이다.

[이하 생략]

*공관

『사안』 9호, 1966년 3월, 72~93쪽.

Bruce Downes 내한 Seminar

편집부

제1일

일시: 1966년 1월 15일 (토) 오후 1시 30분~6시

장소: USIS (미국공보관) 2층

제2일

일시 및 장소: 1966년 1월 26일 (일) 오전 10시 30분~12시

(USIS 2층)

오후 1시부터

'디너파티' (한국회관 2층)

참석인: C.F.C.,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신선회, 호영회, 숙미회, 한국창작사진협회, Salon ARS,

서울의대사진부, 현대사진연구회 회원

녹음 및 편집: 현대사진연구회 『사안』 편집실

통역: 김행오

오늘 얘기해드릴 것은 별로 길지는 않지만 약간 심각한 문제를 얘기하고자[자] 합니다. 우선 한국에 와서 강의를 시작했을 때 포토저널리즘[포토저널리즘]에 관해서 시작했는데 그때 참석했던 대상자가 물론 전문적인 포토저널리스트[포토저널리스트]인 사진작가들도 있었지만, 그 이외는 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아마추어[아마추어](amateur) 작가도 있었습니다.

사진이란 것은 시각적인 일종의 상호 통신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거리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보아서 그것을 찍을 때

이것의 목적의식은 미국에 가서 아는 친지들에게 보인다는 생각 하에서 촬영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토저널리즘(photo journalism)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은 단순한 아마추어[아마추어] 사진작가라기보다는 좀 더 심각한 어떤 창작 분야를 탐구하는 분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한다는 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닌 물론 포토저널리즘(photo journalism)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당신들의 살고 있는 생활 주변 혹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표현하여 전하느냐 하는 좀 더 심각한 면에서 카메라를 매개적인 도구로서[로 써]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살롱 픽취[픽처](salon picture)에 대해서 말한다면 물론 해석 여하에 다르겠지만 일종의 우리들이 직접 생활 즉 어떤 의미에서 진실한 생활의 사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그러한 사진도 있는데 그러한 사진을 찍을 때 사진 구성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과거의 어떤 선배들의 사진이나 개인의 사진들을 머리에 그리며 찍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평론을 할 때는 어떤 건설적인 의도 없이는 평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어떠한 생활과 사명과 어떠한 사실적인 움직임이 사진에 내포되어 있지 않으면 안[안] 될 것이며 단순한 살롱(salon)적 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롱 사진이란 것은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단순한 생명력이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진의 작화 경향을 이 기회에 용감히[용감히] 버리고 여러분 속에 살고 있는 한 개의, 근본적인 오리지날리티(originality) 즉 근본적인 독창성을 살려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생활 주변을 돌아보고 일종의 포토저널리틱한 면에서 작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고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사진작가와의 회합과 질문 중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개성인 것 어떠한 특수한 것을 자기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받아 왔습니다. 오리지날리티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어렸을 때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보고 듣고 타인의 이야기에 의해서 또는 교육의 영향 때문에 오리지날리티를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잃어버린 오리지날리티를 찾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여하한 사람도 찾기 힘든 것으로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인디비듀얼리티(individuality)와 오리지날리티는 같은 얘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개성적인 것이며 독창적인 것은 자기 자신만의 해석하는 방법으로 자기 주위의 사물을 볼 수 있는 태도에서 얻어집니다.

이러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자기 주위 세계의 생활을 본다는 것은 앞에서 조금 언급한 어떠한 교육적인 것 선입관 기준적인 것 표준적인 것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은 힘을 갖고 있

어야 본인은 자기 자신의 능력 즉 힘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는 과거에 선배들이 찍었고 또한 여러분이 찍고 있는 생명 없는 살롱적인 사진에서 용감히 탈피해서 자기 자신의 세계를 갖는 포토저널리스트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진이란 것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종의 연출한 사진, 다른 하나는 연출하지 않은 자연적인 사진을 말합니다. 연출한 사진이란 것은 정물을 찍을 때 책상 위에 주제(subject)를 배열한다든가 또는 어떤 추상적인 사진을 찍을 때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자] 연출해서 찍는 사진을 말하고 자연적인 사진이란 것은 사진 찍는 사람들이 조금도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지시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기록을 말합니다. 부연하고 싶은 것은 둘째 경우 즉 '있는 그대로의 사진'이란 우리가 과거에 말해 온 리얼리즘(Realism)의 사진이라고 볼 수 있고 찍는 사람이 조금도 연출하지 않는 사진이 오늘날의 포토저널리즘의 주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들도 한 번 머리를 써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내가 포토저널리스트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직업상의 포토저널리스트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들이 이러한 입장에 서서 사진 작화를 해달라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인물 사진을 찍을 때도 연출에 의하지 않는 순수한 자연적인 현상을 기록하는 의미의 작가적 태도와 흘러가는 역사의 조류를 기록하는 작가가 되어야 하겠고 또는 어떠한 자연의 있는 그대로의 미를 포착할 수 있는 포토저널리스트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는 데 있어서 부연한다면 연출된 사진이 결코 나쁘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의 가치가 있겠지만 연출하지 않고 조작되지 않는 방법으로써의 작화 태도가 사진작가의 정도라고 생각하며 조작된 방법으로 작화를 한다면 그것은 사진작가로서의 태도가 아니고 회화를 그리는 화가의 작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Irving Penn'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 본다면 그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이름 있는 작가로써[서] 그의 작품은 아름답고 어떠한 면에서 인공적인 조작된 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저는 참다운 의미에서 'I. Penn'을 사진작가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I. Penn'의 경우 그는 즉 자기가 찍고 싶은 것을 미리 연출하고 배치한 다음에 Shutter[Shutter]를 누릅니다. 그 결과로 매우 우수한 사진이 거기에 나오기는 하지만 본인이 말하고 싶은 사진이란 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I. Penn'의 경우 사진작가가 아니라 회화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의 사진, 다시 말하면 창작적인 조작되지 않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Aldous] Huxley가 말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 사람만이 그 사물을 볼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찾아낼 때 그것이 예술이 될 수 있다." 본인은 이것이 사진을 찍는 사람

이 가져야 될 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물을 미리 보고 그것을 직각적으로[즉각적으로] 유용하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사진이란 것은 물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과거 25년 동안 발전되어 온 카메라 자체의 발달과 카메라 발달에 따른 렌즈의 발달과 동시에 감광재료의 발달 등. 그러한 사진 기구의 발전과 감광재료의 발달이란 것은 우리 사진작가가 과거에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그러한 기능적인, 기구적인 제약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 차차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카메라가 그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단순히 카메라가 인간의 눈(眼) 역할[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부적인 반영을 기록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에 느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또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사진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그 기록된 것은 이 세상에 어느 기록에 사용된 도구로서도 그 이상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순간적으로 기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화가라도 시간의 정지된 상태인 순간적인 상태를 그림으로써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가 미리 조작하고 사물을 미리 배치하고 그러한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촬영한다면 이러한 것은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과 비교할 때 화가가 그러한 일은 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진만이 어떠한 사물을 그 course에서 정지시킬 수 있고 그 찰라[찰나]적인 시간 변화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의 수단으로서도 이 사진기와 같은 역할[역할]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써 현대의 예술(특히 회화)을 초 추상적인 방향으로 쫓아버린 것도 사진의 역할[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우리는 Composition이니 또는 과거의 여러 사람들이 구구하게 실증[실증]나도록 얘기해 온 기타 부분적인 어떤 미적인 문제에서 되풀이해야 하느냐 하는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어떠한 Salon picture의 심사원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사진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내버리고 자기 자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활을 가지고 거기에서 오직 우리 사진의 작화 태도가 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미리 질문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하고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I) 임응식: 미국의 창작 사진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요[오].

다운즈: 우선 전체적인 미국 사진계 현황이라고 하면 광범위한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에는 여러 개의 사진협회나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잡지(Photographic Society for magazine 외) Photographer들 즉 다시 말하면 잡지 관계에 기고하고 잡지 관계에 종사하는 작가들은[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member로서 조직된 이상 member로서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국의 '프로페셔널[프로페셔널] 포토그래픽 쏘사이어티'라는 전문 사진작가 member를 들 수 있는데 여기의 member들은 주로 상업사진작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photographic of America Society(미국사진작가협회)를 들 수 있는데 회원 수는 9천 명이며 여기 member들은 전문 작가가 아닌 다시 말하면 일반적 camera group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각지의 여러 군소 카메라클럽이 있는데 회원 수가 2백 명 내지 3백 명 이상 되는 클럽도 있지만 대부분 2십 명 내지 3십 명 정도로 전국 각지에 수없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한 사진 단체나 클럽을 빼고 클럽과는 좀 다른 클럽이 약 8년 내지 10년 전부터 일어난 현상인데 이들은 젊은 사진가가 뭉친[모인] group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칭 예술가로 자처하고 있으며 또한 예술적인 사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group이 대단한 힘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한 5년 전부터는 뉴욕시 하나만 보더라도[보더라도] 매주 10~15회의 전람회이 이러한 젊은 사진 group[으]로서 전개되고 있고 전국적인 수는 정확한 데이터[데이터]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매주 평균 20~50회의 전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사진이 한 개의 예술 표현수단으로서 여러 사람을 이끌고 있는 점도 사실이고 이러한 점이 인간 생활에 차차 무르익어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시장 중에서 50 내지 60 개 소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사진을 전시하고 있고 사진 전시도 정기적으로 전시를 하는 이러한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특색있는 다른 하나는 미국 각 대학에 사진과가 신설되고 그 신설되는 사진과가 증가 일로에 있으며 사진과에서 교육하는 방법은 대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소위 '미술과'라는 분야에서 한 부분에 사진으로서[써] 교육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미술적인 분야에서 떠나서 한 개의 사진 보도 즉 '포토 저널리스트[저널리스트]' 적인 입장에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적으로는 비교적 적은 숫자이지만 사진이 한 개의 예술품으로서 매매되고 있음은 큰 기대할 것은 아니지만 주목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크게 기대할 바 못 되지만 여하한 사진이 예술품으로서[써] 매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만을 알아두십시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미국 사진계의 현황이 아닌가 봅니다.

(질문 2) 임응식: 구라과와 미국 사단의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오].

다운즈: 이 질문은 제가 그곳의 경험도 없고 해서 힘든 질문이지만 질문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사진으로서 활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실적을 살펴볼 때 스웨덴, 이태리, 일본, 스위스 등이 창작활동에 대표적인 것으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말한다면 생산적이고 매우 의욕적이며 이태리도 의욕적이며 훌륭한 작품이 많이 나오는 데 반하여 미국의 최근의 경향은 특별한 성과도 없고 특별한 업적도 없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임응식: 영국에 '빌 브란트'[Bill Brandt] 같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다운즈: 그 사람은 예로 들 수 있지만, 그 같은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질문 3) 임응식: 사진의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다운즈: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진작가가 만들어낸다는 의미에서 될 수 있는데 그 설명이 곤란한 것은 회화의 경우라면 탄 물체에서 어떤 탄 물체로 변화해가며 창조한다는 점에서 예술이라 말할 수 있지만, 사진의 경우에는 그것이 좀 다르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앞서 이 설명을 위한 반문을 하겠는데 우리가 샷터[셔터]를 누를 때 창작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물론 샷터[셔터]를 누를 때 기록이 되지만 이것이 작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Lens 앞에 있던 것이 그대로 찍히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사진에 작가의 어떠한 의도가 표현된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진을 볼 때는 10중 팔구는 예술이 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떠한 자연 세계의 사물을 한 '후레임[프레임]' 안에 격리시켜 기록하는 창작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이미지]가 실지[실제]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없었던 한 개의 이미지[이미지]가 생겨날 때는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보더라도] 이것은 분명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의 새로운 독창적인 이미지[이미지]를 한 Flame[Frame]에다 결상한다는 것은 어떠한 예술보다도 힘들다는 것을 여기에 부연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사진이 그 누구에게나 예술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시련과 오랜 시일이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질문 4) 임응식: 미국에 있어서의 사진예술과 타 예술과의 유대 관계는 어떠한가요.

다운즈: 그림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쌓고 쌓아서 조직되어 완성되는 것이고 사진이라는 것은 물론 구상은 미리 되어 있겠지만, 그 작화시간은 순간적으로서 전연[전혀] 회화와 다른 방법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회화와는 전연[전혀] 비교가 곤란한 문

제가 아닐까[아닐까] 봅니다.

(질문 5) 임웅식: 미국 예술계에서 사진작가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다운즈: 미국에서 예술가 중 사진예술가가 제일 하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는 사진작가인 '모호리나기[Moholy-Nagy]'라는 사람의 Visual art(시각 예술)가 있는데 그 책자 중에 시각예술에 대해 논평했는데 그 중 사진에 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짐작할 수 있든[있던] 것이 아닌가 봅니다.

미국에서 예술 관계 서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술이 복수가 되어서 즉 전 예술에 걸쳐 종합된 예술지의 Art라는 잡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볼 때마다 목차를 들춰[들춰]보면 한 번도 사진 예술에 관해서는 조금도 기사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사진이 종합적인 art라는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저는 울분을 느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잡지에 사진예술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그것은 현재 미국의 실정이 아닌가 봅니다. 그것은 사진은 아직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media라는 점이며 또 한 가지의 원인은 사진기라는 것은 미국 일반인에게 쉽게 구입되어 사진을 찍기 때문에 일반 생활에 예술과는 동떨어져 일반 물체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이 어찌서 예술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단[다른] 예술과는 다른 미묘한 점에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일정한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한 사고가 달라지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웅식: 그러한 현실에 직면한 오늘날 귀하는 일반에게 사진이 예술이라는 것을 인정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염원이며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운즈: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일반 문학의 지식층에서 사진을 생각하는 경향은 아직도 사진을 예술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작품을 꼬집어 얘기할 때는 예술 가치가 인정되고 사진이 예술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되겠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좀 애매한 문제라고 봅니다.

임웅식: 그것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령 내가 Piano를 친다고 반듯이[반드시] 음악 예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운즈: 그렇지요.

임웅식: 가령 예를 들면 '구겐하임' 상을 Edward Weston이 받았는데 그것은 사진을 예술로서 인정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다운즈: 글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dward

Weston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사람들도 그 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의미의 초점이 사진이 예술작품이라 인정되어 받은 것인지 아닌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사진은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웃음)

(질문 6) 임웅식: 미국의 사진 교육 방법과 그 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오].

다운즈: 사진을 교육하는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에 현재 미국에 60개 대학에 사진과가 있고 6개월 전에 벌써 미국에는 사진교육과협회가 조성되고 제가 출발한 작년 12월 첫 회합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 교육이 굉장히 팽창됐고 그 교육 방법은 하나는 예술적인 입장에서 연구 교육되고 다른 하나는 보도사진적인 견지에서 연구 교육됩니다. 보도사진과에서 교육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신문 잡지에 보도하기 위한 사진으로서 극히 협소한 부분에까지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Art 분야로서 사진 교육은 창작적인 면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교육이 되든[되던] 간에 좋은 방법도 있고 나쁜 방법도 있어서 그 결과적으로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진 교육이 학교에서 많이 교육되고 수적으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Design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Camera를 주어서 어떠한[어떠한] 구도와 Design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진이란 것이 이 경우에는 도구나 수단으로서 이용됩니다.

임웅식: BAUHAUS 같은 데서는 보다 DESIGN적인 면에 주력해서 교육했지 않습니까?

다운즈: 그것은 정당한 사진을 교수하는 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당한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겠지만, Design의 경우에는 사진기가 한 개의 창작예술을 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만[써만] 사용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즉 사진학의 정당한 교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열수 씨의 질문은 녹음기 마이크의 위치와 잡음 관계로 부득이 밝히지 못하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임웅식: 사진 역사를 훑어보면 유명한 여류작가로서 [Julia Margaret] Cameron을 위시하여 'M. 버크화이트[Margaret Bourke-White], D. 랑크[Dorothea Lange]' 같은 이가 있고 지금 이 장내에도 여류 사진작가를 희망하는 분이 많은데 미국 사진계에 있어서 여류작가들의 활동 상황과 또 손꼽을 만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다운즈: 특출나게 뛰어난 여류 사진작가들이 당장 손꼽아 보아도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여기 모이신 여류 사진작가들에게 실망을 줄지 모르지만 우선 예를 들어 『Life』 지를 보면 ‘마그릿 버그화이트’, ‘디나 딘’ 밖에 없는데 꼽아보면 의외로 수가 적습니다. 지금 제가 꼽은 것은 특출하게 이름까지 난 유명한 사진작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여류 사진작가들이 각 분야에서 많이 활약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질문을 받기 전에는 여류 사진작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렇게 뚜렷한 작가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응식: 사진 표현형식에 있어서 단일사진보다는 복수 즉 STORY-PICTURE가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어떠습니까]?

다운즈: 미국의 발표 경향을 말하면 사진의 단행본이 상당한 수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값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자기 자신의 사진을 여러 가지로 묶어서 자기의 사상과 표현하고 싶은 것을 한 개의 Photo essay로서 여러 개의 사진을 한 데 집약시켜서 단행본으로 발행되는 경향이 굉장히 충천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은 하나의 단행본을 만들기 위하여 출판사와 심한 경쟁을 이겨가면서 출판을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사진작가들의 판로도 넓어지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아주 기꺼운 경향이 아닌가 봅니다.

임응식: 작품을 작품 또는 전람회를 할 때 단일 사진을 걸작주의로 발표하는 예를 많이 보았는데 복수로서 Story Picture를 발표하는 것이 새로운 경향으로 보는데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요[오].

다운즈: 정당한 대답일지 모르나 전시를 할 때에 한 개 한 개의 독립적인 것을 집합시켜서 전시를 하는 것보다는 전시되는 사진 전체가 한 개의 테마를 가지고 전시하는 것이 그 전시 효과도 좋고 또 관중에게 말하고저[자] 하는 요점을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며 그런 의미로서 한 사람이 한 개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 개의 사진을 서로 연결시켜 전시도 하고 있지만 여러 사람이 한 개의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도: 아까도 말씀하신 바처럼 사진은 스튜디오[스튜디오] 사진이나 어빙 펜의 사진처럼 사전 계획되고 posed 된 사진과 스냅·솔[스냅 샷] 하는 포도저널리스트[포토저널리스트]적인 사진과의 양자로 구분되는데 어빙 펜의 경향은 좀 뒷전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snap photo는 때로 우연성에 좌우되는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운즈: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 문제가 혹시 잘못 인식되었나 싶어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Irving[Irving] Penn과 같이 사전 배치되고 연출된 사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Irving[Irving] Penn의 경우와 또 자연 그대로를 촬영하는 방법 중 우리가 나간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그것만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연성이 개재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걸작 사진을 꼽아보면 역시 photo journalism 적인 사진이 많으며 그것이 긴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조작되고 연출된 사진에는 그 긴 생명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길을 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photo journalism 적인 길이 더 낫지[낫지] 않은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규: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최근 서독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관주의 사진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운즈: 여하한 사진이라도 좋은 사진이라면 그 분야에서는 우수한 것입니다. 예컨대 좋은 주관주의 사진은 주관적인 사진 분야에서 우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사진이 좋고 어떤 분야의 것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이상도: 『아사히 카메라』라던가 여러 일본 사진지를 통한 일본 사단의 작품 경향과 그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운즈: 일본 사단은 저로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본에 『Asahi Camera』 지는 잘 알고 있지만 최근 1, 2년간은 그 지(誌)를 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바에 의하면 그 지는 매우 화려한 잡지이지만 그 역할[역할]은 저로서는 기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의 경향은 예컨대 도몽켄[도몽 켄]이라던가 사무라이헤[기무라 이해이]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요즈음[요즘] 그 사람들의 작품은 매우 따분하고 줄리울[줄릴] 정도라고 봅니다. 도리어 일본을 방문한 외국 사람들 예컨대 유진 스미스(Eugene Smith)나 윌리엄 크라인[윌리엄 클라인](William Clayne[Klein])의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이 더욱 좋은 것이 많습니다.

전몽각: William Clayne[Klein]의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까르띠에르 브렛송[까르띠에르 브레송]’의 사진과 비교를 해주십시오[오].

다운즈: ‘윌리엄 크라인[윌리엄 클라인]’의 사진은 물론 과격하고 사회적인 나쁜 면만을 꼬집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합니다. 즉 객관적이 못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Bresson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솔직한 면에서 작화된 점이라고 보겠지요.

이형록: 부르스 다운스[다운즈] 씨는 연출된 사진을 극히 싫어하는데 Eugene Smith의 작품에서 다분히 연출적인 냄새가 풍기는데 Eugene Smith의 사진을 좋아하지 않는지요.

다운즈: 아주 곤란한 면을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유진 스미스’의 사진을 무척 좋아합니다. 물론 Eugene Smith의 사진 중에는 연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출된 것은 제가 생

각하기는 아주 최소한으로 극히 필요해서 연출된 것이지 전체적으로 연출된 것이라
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에는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유진 스
미스'만은 제외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임응식: 그러니까 연출한 냄새를 풍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이군요.

다운즈: 그렇습니다.

<질> 그러면 『포퐁러[파퐁러 포토그래피(Popular Photography)]』 지에 real 하지 않은 환타
스틱[판타스틱]한 사진이 많은데 그것은 왜 실리게 됩니까.

<답> 대답이 만족할런지[는지] 모르지만 Cartier Bresson의 사진이 저에겐 좋은데 매일 사
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사진이 수적으로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그분의 작품
만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야의 사진만 게재[게재]하면 잡지는 흥미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떤 새로운 경향의 작품도 게재[게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의 사진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임응식: 그러니까 새로운 경향의 것을 게재[게재]하는데 무작정 재미있다고 게재[게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타당성의 근거 위에서 게재[게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운즈: 사진을 선택하는데 새로운 사진이라고 덮어놓고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택하는데 있어서 어떤 표준도 없습니다. 다만 30여 명의 사진 편집위원이 있어
선택되는데 서로 선택 관계로 늘상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Editorial
Chairman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 전보다는 편하게 되었지요. 그
리고 일정한 표준 하에 사진을 편집하게 되면 그 잡지는 재미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
지요. 한국에 와서 누차 강연이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진지하고 흥미 있는 것은 처음
이며 오히려 배운 것이 많습니다.

임응식: 한국 사단의 최고의 지성의 모임인 까닭에…… (일동 폭소)

- 1월 16일 한국회관 오찬회 석상에서 -

~~~~~

편집실: 한국에 남기고 싶은 말씀과 특히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  
시오[오].

다운즈: 제가 이곳 Korea에 오기 전에는 한국은 암담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밝은 나라라고 생각하며 또한 내 예상보다 사진  
열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일간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 뵈고 또  
여러 group의 사진인에게 강연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을 만나  
어제 저녁처럼 깊은 데까지 디스커션을 가진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깊이 파고드는 데에 놀랐으며 모든 문제를 제가 다녀 본 그 어느

나라의 경우보다 더 심각히 다루고 있는 데 대해 감격하고 또한 그 열성에 찬사를 보  
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group과 만난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며 여러분을 더 도  
와주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사안』 9호, 1966년 3월, 67-71쪽.

### 르뽀르따주[르포르타주](Reportage)와 도큐멘타리[다큐멘터리] (Documentary)\*

전몽각

근래에 와서 우리 주변에서는 ‘르뽀르따주’ 또는 ‘도큐멘타리’란 말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외  
국에 비하면 만시지감(晩時之感)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런 방면에 눈이 뜬  
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이것은 현대사진의 주류가 역시 이 ‘르뽀르따주’ 또는 ‘도큐  
멘타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 내한했던 ‘다운즈[브루스 다운즈(Bruce Downes, 1899-1966)]’  
씨가 강조한 ‘포토·자나리스트[포토저널리스트]’의 정신도 그 방법론에서는 르뽀르따주나  
도큐멘트에 귀착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말들에 대한 보다 정  
확한 개념을 음미해보자. 우리나라의 대백과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르뽀르따주’

보고문학의 일종이며 신문의 장문보도에서 파생한 문학의 장르(분야). 사회적 관심을 끄는  
현실과 체험을 분석(粉飾)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관찰자의 신앙을 통해 감명깊이 서술한다.  
제1차 대전 후에 발생되어 오늘날에 많이 쓰이고 있다.

‘도큐멘타리’

[문서로 되어있다] [기록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전용(轉用)되어 사실에 아무런 가식  
을 가하지 않고 기록한 보고영화, 서적, 방송을 말한다.

물론 르뽀르따주는 문학에서 도큐멘트는 영화에서 온 말이다. 1차 대전이 끝난 1920년대 표  
현주의에 저항해서 일어난 신즉물주의(New Sachlichkeit) 문학의 주장의 하나가 르뽀르따주  
였다. 대표작으로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Remarque[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Erich  
Maria Remarque), 1898-1970)]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가 있다. 소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논픽션[논픽션]’이며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일상성(日常性)에서의 사실에서 진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특징이라 본다. 한편 사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데 너무나 충실한 카메라가 이 주장을 도입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보겠다. ‘보몬트 뉴홀’은 초점이 선명한 수정이 없는 Straight photo는 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증거로서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가진다]. 이와 같은 사진은 사진의 정의에 따르면 도큐멘타리(기록적)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뉴홀’은 도큐멘타리의 개념에는 역사적(Historical), 사실적(Realistic), 현실적(Actual)인 개념이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도큐멘타리 사진가는 단지 테크니션[테크니션]이 아니다. 또한 예술을 위한 예술가도 아니다. 그것은 ‘사진적인 Reporter’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큐멘타리 속에는 Information을 준다든가 기록전달 한다는 개념이 있으며 구극(究極)에서는 르포르타주와 다른 데가 없다. 伊奈信男[이나노부오]은 “전자는 기록(레코드)이란 작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후자는 전달이란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중점을 두는 데 따라 다를 뿐이며 [개념에 있어서는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르포르타주나 도큐멘타리 사진에 대한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폴로사’에 의하면 도큐멘타리의 방법의 본질은 현실적인 소재의 Dramatization[Dramatization](창조적 극화)에 있다.[고 하고] ‘보몬트 뉴홀’과 같이 포토·도큐멘트가 자료적 가치 내지 증거적 가치를 보지(保持)하기 위해서는 선명한 초점을 생명으로 하는 Straight photo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상의 Texture보다 순간적 비존[비존]속에서 ‘Actuality’를 추구하는 스냅사진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웨스턴[에드워드 웨스턴]’이나 ‘애트제[앗제]’도[와 같은] ‘Straight photo’도[가] 이 범주 속에 들 것인가에[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토·도큐멘타리’의 생명인 ‘Actuality’가 약하기 때문이라 본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양식적(樣式的)인 Straight-photo인가 아닌가는 별문제로 하고 그들의 작품에서 보는 엄한 물질에의 즉물적인 기록이 그대로 그들의 내부현실의 기록으로 된 점을 평가하고 이것은[을] 포토·도큐멘타리로 해설하는 重森弘淹[시게모리 코엔]이 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예기[예기]를 계속하고 있다(오늘의 사진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그것이 아주 자료적 가치를 보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학적 기록을 ‘포토·도큐멘트’로 부를 수는 없다. 거기에는 ‘로사’가 말 한바와 같이 현실을 소재로 해서 창조적 극화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현실을 소재로 하고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한 그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과학의 기초가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이 방법상의 특징이겠으나 그렇다고 도큐멘타리는 사회과학적 소견의 영상적 번역이어서는 좋지 않다.

오히려 감성적 인식을 통해서 발상되는 것을 이성적 인식에 의해 처리하는 작업 태도가 중요하다. ‘도큐멘타리’라고 해도 예술 수단에 의한 현실 인식이므로 감성적 인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우선 타당한 방법이다. 또한 도큐멘타리 예술은 현실의 극적인 재구성을 의도해서

안이한 드라마화(化)에 떠러져[떨어져] ‘Actuality’를 상실할 우려도 있겠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오늘날 의욕적인 작가들이 예술에 있어서의 기록성과 기록에 있어서의 예술성이란 양면을 겹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력 있는 예술창조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라고[있는 것이다].

-끝.

\* ‘르포르타주’와 ‘다큐멘타리’의 표기는 초출에 한해서만 교정했다.

\*\* 위 원고는 일부 수정되어 같은 해 『포토그래피』 창간호 24쪽에 게재되었다. 『사안』에 실린 위의 글 중 문맥상 어색한 부분은 『포토그래피』에 수록된 원고와 비교 검토해 [ ]안에 보충했다.

### 일간지 자료

『경향신문』, 1962년 2월 11일

#### 한일자, 「제시되어야 할 과제,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전》평」



회화가 사실에서 손을 들고 자유로운 추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발견 해서부터 벌써 반세기란 시간이 흘렀다. 회화에 있어서 꼭 현대에 해당 되는 이 짙막한 시기에 사진은 비로소 예술로서 탄생했으며 동시에 눈부신 활약을 했고 성장해왔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회화가 일찍 통과해 온 길을 한번 다시 뒤쫓은 [는] 감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광막한 현대 예술의 영역에서 누가 해 놓은 성과이건 간에 한번 달성된 성과를 뛰어넘어서 더욱 새로운 별개의 영토를 개척하기에 이미 성공했다는 점을 평자는 단언할 수 있다.

《제10회 국전》에 있어서의 추상예술의 압도적인 승리를 비롯하여 임응식 이명동 등의 서울시 문화상 획득 그리고 올해 들어 신설 공보부의 사진부문에 대한 활동 기회의 무차별은 이제야 한국 사진작가들에 관

한 재평가와 그들 자신의 과제로서 가장 난처할 현대 사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결코 안이했던 과거와 같은 소위 사태의식만으로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들리는 소리〉의 한광희는 과거의 ‘아마추어’ 사진가들이 해서 성공한 바 있는 구도풍을 따서 무난하다. 그러나 사진에 있어서의 조형성(막연한 유행어다)이란 ‘리얼리티’(객관성)와 주관적 ‘모티브’의 유리가 아니라 보다 고도의 파악을 위해 현실을 한층 속 깊이 보는 눈이 요청된다. 상징적인 정경을 취하려는 의도가 한낱 실험으로서 이미 끝난 바 있는 구도나 배열 방식에서 끝나 있는 것이 이밖에도 장내에 몇 점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가 희박은 화면으로 주장점이 취약했다. 민경자는 일종의 ‘리얼리즘’을 좇고 있는데 좋은 의미로서 그것은 19세기 자연주의 아닌 ‘리얼리즘’의 독자 풍에다 섬세한 성격이 깃들여 외적 사상이 내적인 정의로써 표현되고 있다. 자유로운 사고가 앞으로의 과제일 게다. 〈바위웃〉의 류승참은 사진의 조형성을 회화풍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운동(주관)의 공간적인 예리한 눈이 없다. 다만 ‘몽타주’와 ‘휘트그림[포토그램]’과 같은 기술로써 정면을 기피하지 않는 곳에 관점을 두는 듯, 〈공사장〉의 허 달은 사물을 암시적으로 포착하여 현대의 위기적인 공간이나 현장을 예리하게 파고 들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빈약하다. 구도적인 고정관념의 탈피가 긴요. 〈귀로〉의 이영훈은 무슨 주관적인 경향 없이 취한 화면이지만, 자연이나 인간을 심리적으로 잡으려는 대목이 몇 보인다. 김효열은 다분히 유리적인 사진술이나 회화적인 사진에서 떠나서 자유로운

한가지 사고를 표상하려는 의도가 확실하다.

〈재목〉이나 〈창〉 등은 기대될 만한 미래를 지녔다. 〈나루터〉의 정철용 〈마부〉의 최금영 그리고 〈강변〉의 진몽각, 진용중 등의 좋은 ‘아마추어’들이 이 밖에도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이 없다.(필자·미술평론가) 한일자.

[사진] 〈창〉 류승참 작

『한국일보』, 1963년 7월 4일

#### 임응식, 「(사진평) 깊은 심리적 공간 구성, 《현대사진연구회 제2회전》」

전위적 정신으로 똘친 현대사진연구회의 《제2회 발표전》이 7월 1일부터 8일까지 중앙공보관에서 열리고 있다. 여기엔 추상 형태의 조형작품이 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이념 밑에서 문제를 공동 과제로서 추구하는 사진 단체란 우리나라 사단(寫壇)의 경우 극히 드문 일이라 하겠다. 이번 이 전시회의 작품들을 대별(大別)해서 감각적 공간구성과 심리적 공간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도 예리한 조형감각에 의해서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저변이 얕음을 느낌에 반하여 후자는 보다 복잡하고 깊이 있는 내용의 세계를 전개시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구성 또는 조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형식적인 구성이나 조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디까지나 그 형태창조는 존재의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의 시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형을 하기 위한 조형은 별로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거기에는 하나의 사상성(思想性)이 수반 또는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흥사진이 사진에 새로운 시각을 부여했다든지 기술의 가능성이나 표현의 실험을 인정시킨 이후 오늘날까지 사회는 격변하며 마침내 ‘메커니즘’을 인간적인 창조 작용 속에 동화시키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상기할 때 사상적 자각 없이 단순한 기교적 테두리 속에서 조형 사진을 다루게 된다면 이것 역시 멀지 않아 ‘리얼리즘’ 사진의 경우와 같은 말로(末路)를 밟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리라고 본다.

끝으로 인상에 남는 작품들을 추려본다면 김선홍 〈보선 작업 A〉, 〈조춘〉, 백환규 〈제설(除雪)〉, 이영훈 〈상류〉, 〈램프〉, 〈미스·김〉, 이창환 〈폐허〉, 이한근 〈작품〉, 진몽각 〈달맞이〉, 〈여명〉, 정철용 〈정리〉, 허 달 〈호기심〉, 황규태 〈삼립〉, 〈숲 속의 아침〉, 〈길〉, 김춘식 〈소녀〉,

박봉근 <박물관에서>, 이상도 <금>, 이호산 <노역(勞役)> 등은 훌륭한 조형 감각을 엿보였으며 앞날에 있어서의 보다 실험적인 영역을 확충시켜 새로운 개척에 힘써주기를 바란다.

임응식(사진작가)

『동아일보』, 1963년 7월 5일

이명동, 「비약하는 젊은 지성의 결정, =《현대사진연구회 2회전》 평」

새로운 '아이디어'와 '충실한 사색'을 작화정신으로 삼고 있는 현대사진연구회의 제2회전이 지난 2일 중앙공보관 제1화랑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작품의 대부분이 '하이키'와 '로키'의 극단적인 '톤'으로 조형되어 용솨음치는 젊은 정열을 마구 쏟아놓고 있다. 짙은 개성적인 감정과 사색하는 지성은 추상의 세계를 더듬게 하고 전위라는 이름의 깃발을 들게 하였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만네리즘[매너리즘]'에 빠져 지루하게 허덕이던 지난날의 우리 사진예술의 주형(鑄形)에서 용감히 탈피하려는 몸부림이라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을 남겨주고 있다. 즉 진실성을 무시한 과장된 추상적인 표현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문제다. '진실성'은 사진예술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사진예술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회화예술의 영역을 가면서까지 작가 자신의 사상과 개성을 표현해야만 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독일의 '모오리·나기[모홀리 나기]'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사진은 빛(光)에 의한 조형이다"라고 갈파하고, 사진조형의 가능성을 확대 해 놓았다. 즉 '포토그램'과 '포토·몽타주'로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도 조형을 할 수 있고 또 2매나 3매의 원판으로 '몽타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오늘날까지 세계 사진예술의 주류는 '묘사에 의한 조형'이 생명으로 고수되어 왔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 전시된 전문각 씨의 <달맞이> 같은 작품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완전히 회화의 영역을 가고 있다.

모든 예술의 가치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작가 자신의 사상과 개성의 무제로 귀결된다고 한다면 전문각 씨의 <달맞이>는 훌륭한 예술작품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만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감각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잘못이다. 어쨌든 이번 현대의 사진전은 비약하는, 젊은 지성의 결정을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깊은 감명을 던져주었다. 끝으로 심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역시 내용이 좀 약하다는 점과 또 작품의 '톤'에서 정서적인 '하프·톤'을 무시해버렸다는 점이다. (이명동)

[사진] 전문각 작 ... <달맞이>



『경향신문』, 1963년 7월 8일

이경성, 「신선하고 의욕적인 자세, 《현대사진연구회전》을 보고」

지역적인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적 시야에서 움직이고 있는 한국 현대사단의 일각에서 신선한 감각과 의욕적인 자세로 사진 예술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선 호감이 간다. 더구나 사진이 넓게는 조형예술의 일환이기에 '카메라 아이'를 통해 조형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공간 처리, 물질 발견, 자연 관찰, 그리고 조형의 재구성 등은 그러한 성과라고 본다. 이것은 사진예술이 회화의 자매로 출발하고 지금도 어느 의미에서는 그들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현황 속에서 당연한 기초 작업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현대의 사진이 갈 길은 회화와 자매관계에 안이하지 말고 사진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진은 조형예술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회화와 같은 영토 내에 있으면서도 그의 독자성을 찾아서 사진미학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어떤 것이 회화적인 사진이고 어떤 것이 사진다운 사진이냐는 문제는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평면상에서, 그리고 광학이나 사진의 재료를 에워싼 자연과학의 기술을 매개로 회화가 도달할 수 없는 고유의 조형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사진미학의 길이 아닐까.

그 점 한국 사단의 신예들의 집단인 현대사진연구회는 그들의 국제적인 평가를 계기로 이 거창한 과업을 극복하는데 기대를 걸어보자는 것이다. 이번에 출품된 작품 중에서 이영훈의 <작품>, <상류>, 이상도의 <금>, 이창환의 <폐허>, 이한근의 <작품>, 전문각의 <달맞이>, 정철용의 <무상>, 황규태의 <삼림> 등은 그들의 작가적 과정에서 기념할 만한 좋은 수준의 작품들이었다. (이경성)

[사진] <보선작업 A> 김선홍 작

『신아일보』, 1966년 12월 8일

임응식, 「사진전시회-사실주의(寫實主義)로 선의의 변질, 현대·뉴포토 클럽 등 세 사진 전시회」

사진전이 이쪽저쪽에서 계속 열리고 있다. 《제9회 뉴포트[뉴포토]·클럽전》(11월 26일~12월 1일 중앙공보관), 《제4회 사진동우회전(寫眞東友會展)》(12월 1일~6일 신문회관), 《제4회 현대사진연구회전》(12월 2일~7일 중앙공보관)이 있고 9일부터는 신선회의 《제4회전》이





중앙공보관에서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그것들의 한결같은 점은 과거 수년간의 악몽에서 깨어나거나 하듯이 작품 경향이 전향적(前向的)인 자세로 되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뉴포트[뉴포도]·클럽’은 본래 초현실주의를 표방하여 출발한 후 특유한 존재로

되어왔으나 2, 3년 전으로부터는 약간의 혼미(混迷)를 보이더니 이번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라고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거의 사실주의 경향으로 선의 변질을 했고 사진동우회는 동아일보사가 주최한 《동아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작가로서 조직되어 있는 것인데 본래의 경향이 사실주의여서 5·16혁명 이후 극도로 혼돈상태에 빠져있는 사단(寫壇)에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 사실주의를 지속 주도해왔고 현대사진연구회는 주관적 조형사진을 주로 하여 발족했으나 금회(今回)에 이르러서는 일대전환을 기도하여 사실주의 경향의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것이다.

사진예술은 객관묘사를 본령(本領)으로 하여 사상표현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되 그렇다고 해서 주관적인 표현, 즉 육안(肉眼)을 부정하고 인간의식 하(下)의 영상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무조건 배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계를 통해서 인간의 상상력에 의해 발생하는 ‘이미지’를 시각화한다는 것은 지극히 난이(難易)한 일일뿐만 아니라 타 미술에 비하여 그 노고는 크면서도 효과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되고야 마는 것이 통례다. 이러한 점을 늦게나마 깨닫고 본연의 자세로 전환을 시작한 점은 기쁜 일이라 하겠다. 사진인은 모름지기 20세기 후반이라는 이 시점에서 인간을, 그리고 현실을 직시, 비판, 기록하는 작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여담이기는 하나 이 기회를 빌어서 한마디 하거니와 우리나라 《국전》 사진부에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심사원들이 사진에 울긋불긋 물감칠했던 것이라든지 속임수로 조작된 사진에 특선이라는 신성해야할 귀한 상을 배급조로 주는 따위의 무식이 일소(一掃)되어 명랑하고 올바른 사단이 하로 속히 되살아나기를 바라면서 위의 각 전시회에서 인상 받은 작품들을 열기(列記)해본다.

‘뉴포트[뉴포도]·클럽’에서는 조중 <유랑(流浪)>, 장원훈 <설원(雪原)>, 황태엽 <초점>, 사진동우회에서는 송호창 <노인>, 서선화 <기원>, 조중 <육학년>, 한규성 <합장(合掌)>, 조천용 <좁은 문>, 김종순 <속삭임>, 김용택 <레인지>, 현대사진연구회에서는 이창환 <MY SONS>, 박원걸 <무성(無聲)>, 이창진 <노(C)>, 이상도 <노역녀(勞力女)(A)>, 김선홍 <비현실>, 백남식 <ORPHAN>, 김단규[김원규] <작품 Q>, 김효열 <이정(異情)> 등은 그것이 사실적이건 조형적이건 간에 작가의 의도가 잘 표현된 것이라 하겠다.

(한국창작사진협회 위원장) <임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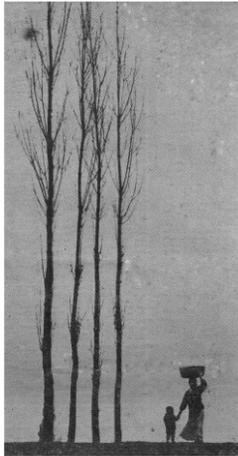
[사진] <우후(雨後)> 이강원 작(현대전에서)

**'싸롱아루스(Salon Ars)'와 '현대사진연구회' 주요 회원 작품 소개**

일러두기: 본 이미지 자료는 '현대사진연구회' 주요 회원들의 작품을 '현대사진연구회' 활동 시기를 중심으로 수집해 정리한 것이다. 이미지 자료는 원작의 상태와 다를 수 있다.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출처: 팸플릿 《제2회 국제진출작가 사진살롱》(1962),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전》(1962), 《제2회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전》(1963), 《한국 제1회 국제 사진살롱》(예술 경북지부 주최, 1963), 《제2회 숙미회 회원전》(1963), 《제3회 숙미회 회원전》(1965), 《제1회 동아국제사진살롱》(1966); 주간지 『고대신문』(1963.8.24); 월간지 『코리언 리퍼블릭』(1964.7.14.), 『캐머러세데』(1964.8), 『포토그래피』(1966.8); 전시도록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 1945-1994』(1994), 『전통과 그리고 율미네 집』(한미사진미술관, 2010), 『한국사진역사전』(1998); 단행본 『66 한국사진연감』(1966), 『전통각』(눈빛, 2013); 그 외 『전통각 스크랩북』(유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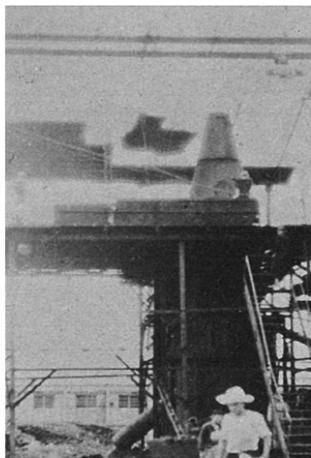
김선홍



〈조춘(早春)〉, 1963.



〈노모〉, 1963.



〈건설〉, 1966년 경.

김응태



〈보금자리〉, 1963.



〈Composition〉, 1964.



〈상심〉, 1964.



〈새동생〉, 1966.



〈물놀이〉, 1966년 경.

김행오



〈빛나는 것은〉, 1958.



〈지붕〉, 1961.



〈외로운 새〉, 1962.



〈흑조〉, 1962.



〈강아지풀꽃 피는 강변〉, 연도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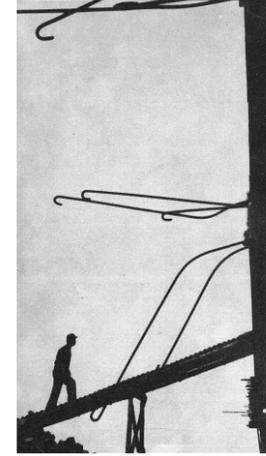


〈창문〉, 1966년 경.

김효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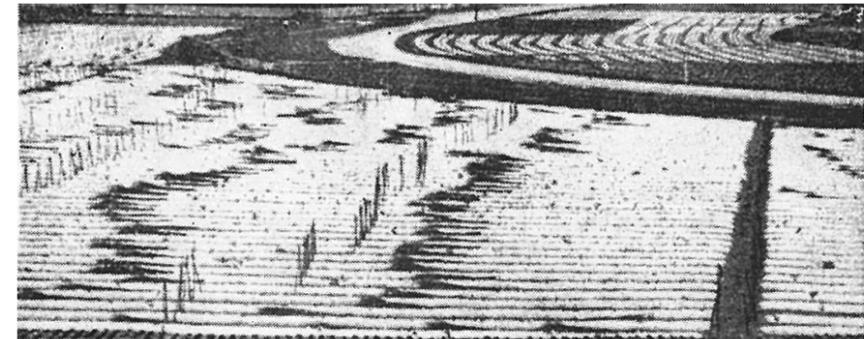


〈파창(破窓)〉,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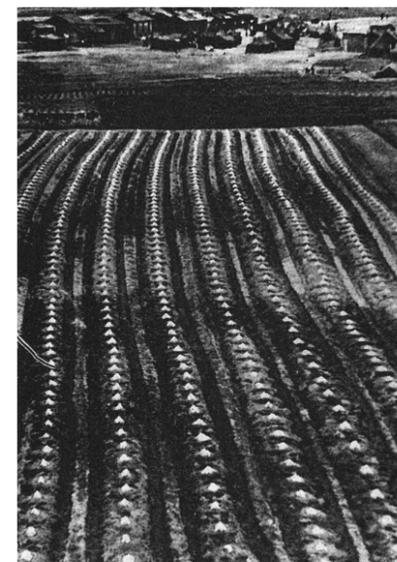


〈공사장〉,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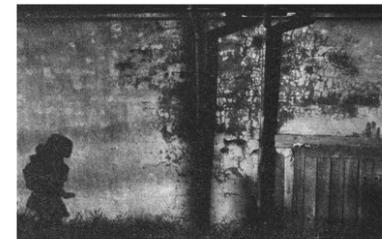
민경자



〈춘전보(春田譜)〉, 1962.



〈밭고랑〉, 1963.



〈노을녘에〉, 1963.



〈상념〉, 1963.



〈유정(有情)〉, 1963.



〈길〉, 1964.

박영숙



〈고아〉,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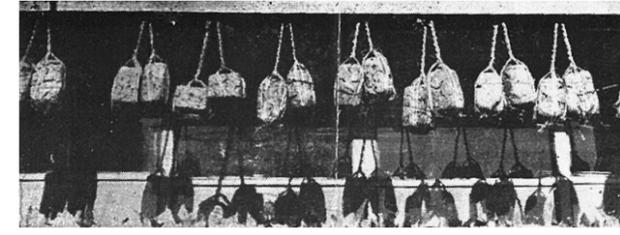


〈뉴 마스크〉, 1966.



〈눈 오는 날〉, 1966.

백환규



〈양지〉,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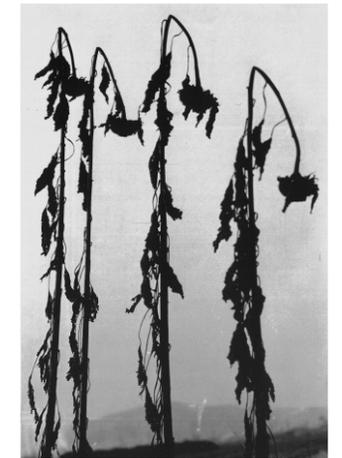


〈Hard Work〉, 1963.

이상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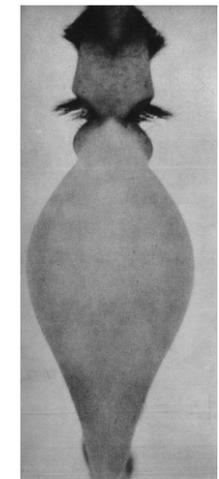
〈길〉,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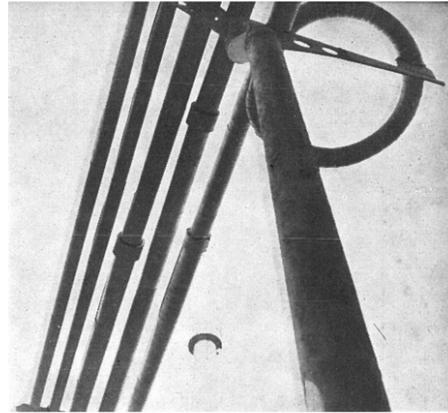
〈실망의 계절〉,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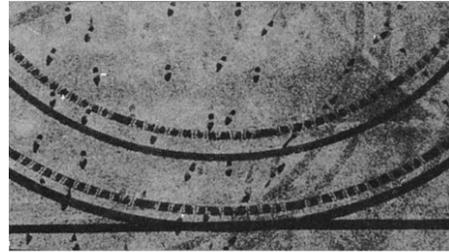
〈침식〉, 1962.



〈작품 Q〉,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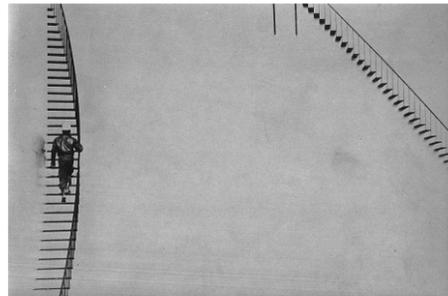


〈컴포지션〉, 1966.



〈composition〉, 1966년 경.

이상도



〈구경〉, 1963.



〈금〉, 1963.



〈여상(女像)〉, 1964.



〈High Noon〉, 1964.

이영훈



〈귀로〉,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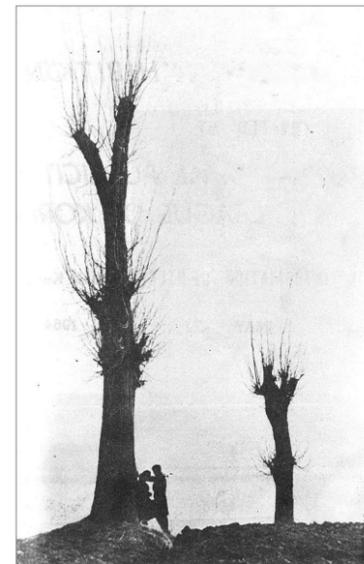
〈Miss Kim〉,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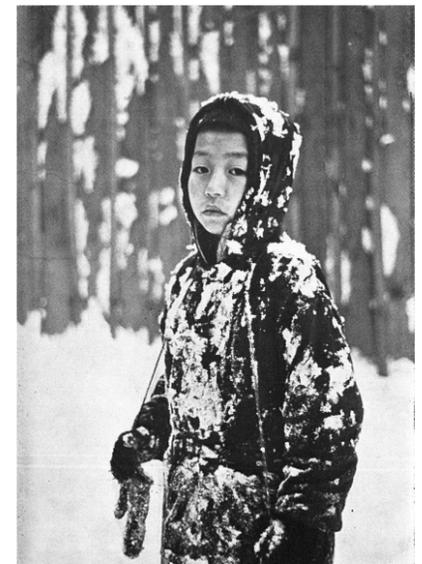
〈상류〉, 1963.



〈담〉, 1963.



〈조춘〉, 1963.



〈포트레이트〉, 1966.

이창진



〈페이브먼트〉, 1964.



〈누드〉, 1965.

이창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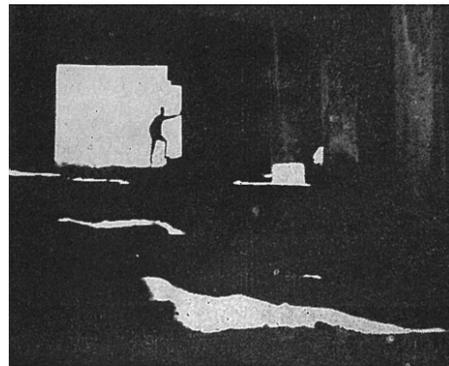
〈Miss. Lee〉, 1963.



〈공사장〉,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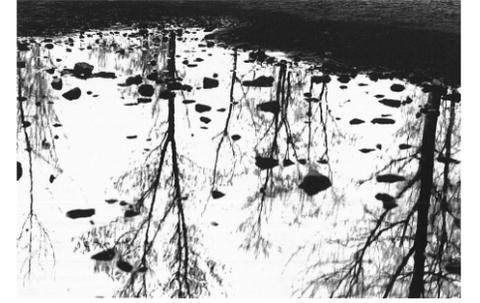
〈설경〉, 1963.



〈페허〉, 1963.



〈하동〉,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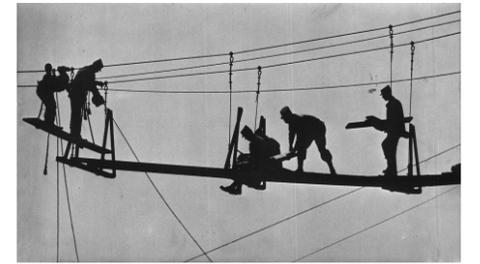


〈투영〉, 1967.

이호산



〈노역〉, 1963.



〈가교(架橋)〉, 1964.

전몽각



〈강변〉, 1962.



〈동동(冬童)〉, 1962.



〈얼어붙은 태양〉, 1963.



〈달맞이〉,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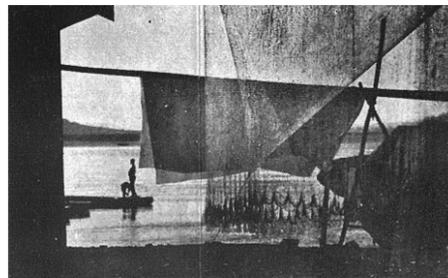


〈벽〉, 1963.



〈전선〉, 연도미상.

정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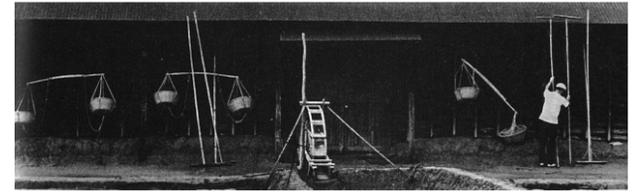
〈나루터 풍경〉, 1962.



〈투영〉, 1963.



〈희구〉,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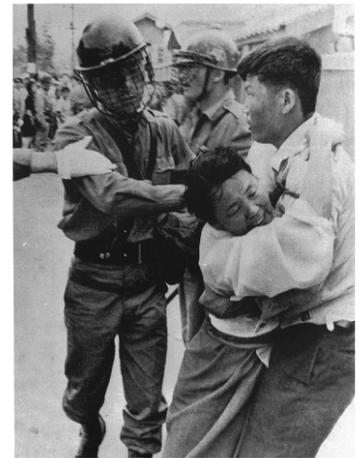


〈정리〉, 1963.

조천용



〈포도〉, 1963.



〈모경〉, 1964.



〈정(靜)〉, 19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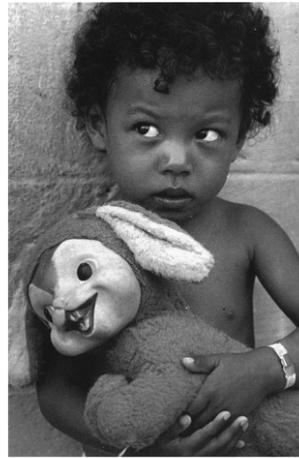
주명덕



〈섞여진 이름들〉 중에서, 1965.



〈섞여진 이름들〉 중에서, 1965.



〈섞여진 이름들〉 중에서, 1965.

허달



〈난부〉, 1962.



〈공사장〉, 1962.



〈호기심〉, 1963.

황규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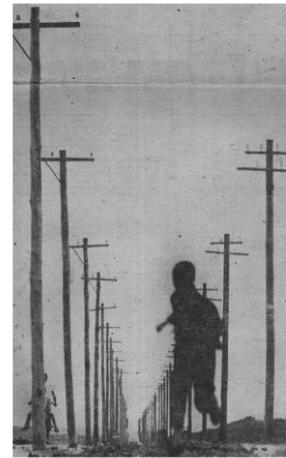
〈길〉, 1963.



〈삼림〉, 1963.



〈숲 속의 아침〉, 1963.



〈전주(電柱)길〉, 1963.

**‘싸롱아루스(Salon Ars)’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참고자료: 일간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월간지 『포토그래피』, 『사진예술』, 『캐머러 세대』, 『사안』(4호~9호), 『현대사연(現代寫研)』(창간호); 단행본 『한국현대 미술사(사진)』(동화출판공사, 1978); 그 외 전시 인쇄물.  
\* 정확한 일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로 표기.

| 연도   | 일시  | ‘싸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 회원 활동 및 기타                                                                                                                                                                                      |
|------|-----|------------------------------------------------------------------------------------------------------|-------------------------------------------------------------------------------------------------------------------------------------------------------------------------------------------------|
| 1960 | 10월 | 싸롱아루스 창립<br>(이형록, 이상규, 정범태, 신석환, 김행오, 김열수)                                                           |                                                                                                                                                                                                 |
| 1961 | 5월  | 2일, 싸롱아루스, 서울사진애호가협회, 콘테스트 입선 축하회                                                                    |                                                                                                                                                                                                 |
|      | ★   | 현대사진연구회 창립                                                                                           |                                                                                                                                                                                                 |
|      | 7월  | 3일, 싸롱아루스, 현대사진연구회 주최, 《US카메라콘테스트》입상 축하회                                                             | 《US카메라콘테스트》이상규, 김효열 (6등입상)                                                                                                                                                                      |
|      |     | 7일, 현대사진연구회 월례회, 서울당반                                                                                |                                                                                                                                                                                                 |
|      | 9월  | 7일, 싸롱아루스, 현대사진연구회 주최, 《제9회 에딘바라국제살롱 콘테스트》입선 축하회                                                     | 《제9회 에딘바라국제살롱콘테스트》김열수 입선                                                                                                                                                                        |
|      | 10월 | 19일-25일, 《제1회 싸롱아루스》, 중앙공보관<br>(출품: 이형록, 정범태, 이상규, 김행오, 신석환, 김열수)                                    |                                                                                                                                                                                                 |
|      | 11월 | 11일-14일, 《제1회 싸롱아루스》 지방순회전, 대구 미국공보원                                                                 |                                                                                                                                                                                                 |
|      | 12월 | 28일, 싸롱아루스 · 현대사진연구회 · 썬아트 주최, 정범태 <결정적 순간>, 《제22회 일본국제싸롱》입선축하회                                      |                                                                                                                                                                                                 |
| 1962 | 2월  | 4일-9일,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전》, 중앙공보관<br>(출품: 한광희, 민경자, 류승참, 허달, 전용중, 이영훈, 백환규, 김효열, 전몽각, 정철용, 최규영)        |                                                                                                                                                                                                 |
| 1963 | 7월  | 1일-7일, 《제2회 현대사진연구회전》, 중앙공보관<br>(출품: 김선홍, 김춘식, 박봉근, 백환규, 이상도, 이영훈, 이창환, 이한근, 이호산, 전몽각, 정철용, 허달, 황규태) | 5월, 박영숙 《신인예술상》 사진부 입선<br>《1963 US카메라 콘테스트》에 제4위 황규태 작 <숲속의 아침>, 제5위 민경자(숙명여대) 작 <노을녘에>, 제6위 황규태(서울) 작 <길>, 주명덕(경희대) 작 <봉봉군(군)>, 민경자(숙명여대) 작 <상념> 입상<br>8일, 현대사진연구회 주최, 《1963 US카메라 콘테스트》입상 축하회 |
|      |     | 8일, 현대사진연구회 주최, 《1963 US카메라 콘테스트》입상 축하회                                                              | 《서독플레너카메라콘테스트》에 민경자 작 <남매> 입선                                                                                                                                                                   |
| 1964 | 6월  | 『월보』 창간(팝플랫판, 『사안』의 전신)                                                                              | 《제16회 캐나다국제사진살롱》에 이상도 <자매>, 김웅태 <노인> 입선                                                                                                                                                         |
|      | ★   | 『사안』 2호 발간                                                                                           |                                                                                                                                                                                                 |
|      | 8월  | 『사안』 3호 발간                                                                                           |                                                                                                                                                                                                 |
|      | 9월  | 『사안』 4호 발간                                                                                           | 10월, 《제13회 국전》에 이장호, 이창진, 주명덕, 김열수, 김웅태 입선                                                                                                                                                      |

| 연도   | 일시  | ‘싸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 회원 활동 및 기타                                                                                                                                                                                                                                                                                                                                                                                                                                                                                                                                                          |
|------|-----|--------------------------------------------------------------------------------------------------------------------------------------------------------------------------------------------------------------------|---------------------------------------------------------------------------------------------------------------------------------------------------------------------------------------------------------------------------------------------------------------------------------------------------------------------------------------------------------------------------------------------------------------------------------------------------------------------------------------------------------------------------------------------------------------------|
| 1964 | 12월 | 총회 개최, 1965년 임원선출<br>회장 김선홍, 총무간사 이상도, 재정간사 정철용, 섭외간사 이장호, 조천용, 외국부간사 주명덕, 편집간사 이창진<br>15일-23일, 현대사진연구회 주최, 미술강좌 개최, 삼익빌딩<br>강의: 이경성 <미학개론,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박서보 <현대미술감상, 현대미술의 진로>, 임응식 <사진사, 사진론><br>『사안』 5호 발간    | 10월, 동아일보사 주최,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특선 조천용 <모정>, 입선 전몽각, 김웅태, 이호산, 이영훈, 김선홍, 이상도, 김효열, 주명덕, 정철용.<br>11월, 주명덕, 이장호 현대사진연구회 입회.<br>김효열, 싸롱아루스에서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으로 돌아옴.                                                                                                                                                                                                                                                                                                                                                                                                           |
| 1965 | 1월  | 22일, 『사안』 편집실 주최, 《사진예술의 본질과 지향점》 좌담회 개최, Salon D'alliance<br>주논제: 한국사단의 시발과 발전상 개략<br>회화와 사진예술과의 동일성 유사성 및 차이점에 대한 비교고찰(사진예술의 본질)<br>앞으로의 사진예술의 방향과 문제점<br>참석인: 임응식, 황염수(화가), 이형록, 김행오, 전몽각, 이상규, 이영훈<br>사 회: 이창진 | 현대사진연구회 회원 명단: 김효열, 정철용, 이창환, 백환규, 김선홍, 이호성, 박봉근, 서규영, 백남식, 조천용, 이준근, 최방환, 전인행, 이장호, 주명덕, 권명광, 이성하, 민경자, 박영숙, 이충구, 조순형, 김수연, 오순자, 윤문석, 심순옥, 명옥자, 한정선, 황규태(도미), 김웅태(입대), 이상도(입대), 김원규<br>싸롱아루스 회원 명단: 이형록, 이상규, 김행오, 정범태, 전몽각, 이영훈.<br>3일-15일, 《주명덕, 어린이 주제에 의한 사진소품전》, Salon D'alliance<br>11일-17일, 《제1회 한국창작사진협회 창립전》 출품, 중앙공보관<br>(ARS: 이형록, 이상규, 정범태, 김행오, 전몽각, 이영훈 / 현대사진연구회: 김선홍, 이창환, 김효열, 정철용, 박봉근, 이호산, 이상도, 백남식, 이창진, 김웅태, 주명덕, 이장호)<br>《베를린국제사진살롱》에 전몽각, 주명덕 입선<br>28일, 『Korea Republic』 해외판에 이상규, 이창환, 주명덕, 민경자(전 회원) 의 겨울사진 4점이 특집으로 실렸다<br>16일, 황규태 도미 |
|      | 2월  | 『사안』 6호 발간<br>월례회 (황규태, 서규영, 최방환, 김선홍, 이상도, 백남식, 이장호, 정철용, 권명광, 이춘구, 조순형, 이성하, 서규영, 이창진, 주명덕, 최방환)                                                                                                                 |                                                                                                                                                                                                                                                                                                                                                                                                                                                                                                                                                                     |
|      | 3월  | 월례회                                                                                                                                                                                                                |                                                                                                                                                                                                                                                                                                                                                                                                                                                                                                                                                                     |
|      | 4월  | 『사안』 7호 발간                                                                                                                                                                                                         | ★ 민경자(전(前)회원, 『여원』 사진기자), 박영숙 (『여성』 사진기자), 현대사진연구회 입회.                                                                                                                                                                                                                                                                                                                                                                                                                                                                                                              |

| 연도   | 일시  | '싸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 회원 활동 및 기타                                                                                                                                                                                |
|------|-----|-----------------------------------------------------------------------------------------------------------------------------------------------------------------------------------------------------------------------------------------------------------------------------------------------------------------------------------------------------------------------------------------|-------------------------------------------------------------------------------------------------------------------------------------------------------------------------------------------|
| 1965 | 4월  | 월례회                                                                                                                                                                                                                                                                                                                                                                                     | 《아사히펜탁스 국제사진콘테스트》에 김응태 작<br>〈보금자리〉 4위 입상<br>5월, 《제4회 신인예술상》에 김응태, 윤문석, 조무형,<br>이장호, 심순옥, 박영숙, 조천용, 명옥자 입선                                                                                 |
|      | 8월  | 10일-16일, 《제3회 현대사진연구회전: 어린이 현장》, 중앙공보관<br>(출품: 김선홍, 김효열, 김수연, 권명광, 명옥자, 민경자, 박봉근, 박영숙,<br>백남식, 서규영, 심순옥, 정철용, 조천용, 조순형, 주명덕, 이호산,<br>최방환, 이장호, 이창환, 오순자, 윤문석, 한정선, 황규태, 이성하,<br>찬조출품: 이형록, 이상규, 김행오, 전몽각, 이영훈, 총 62점 출품)<br>《목요미학강좌》<br>제1강좌 이상규(살롱아루스) 〈추상적인 사진〉, 제2강좌. 방근택<br>(홍대 교수·미술평론가) 〈사진비평〉, 제3강좌 김숙진(홍대<br>교수 서양화) 〈근대적 미술사조〉, 제4강좌 박고석(서양화)<br>《구와바라 시세이(桑原史成) 초청 좌담회》, 창일다방 | 6월,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br>가작 이장호, 입선 이호성, 박봉근, 이장호, 주명덕,<br>심순옥, 오순자, 주명덕, 조천용, 이준근, 조순<br>형, 김선홍, 정철용                                                                                        |
| ★    | 12월 | 『사안』 8호 발간<br>15일-23일, 현대사연 주최, 미술강좌 개최, 삼익빌딩<br>미학개론, 서양미술사, 한국미술사 : 이정성, 현대미술감상,<br>현대미술의 진로 : 박서보, 사진사, 사진론 : 임응식                                                                                                                                                                                                                                                                    | ★ 현대사진연구회 사무실: 충무로 일가 백송 빌딩<br>내 소피아서점<br>★ 사안편집실: 충무로 일가 동양빌딩 309호<br>★ 왕상혁, 김홍기, 현대사진연구회 입회.                                                                                            |
| 1966 | 1월  | 15일, Bruce Downes 내한 세미나, 미국공보관<br>참석인: C.F.C,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신선회, 호영회, 숙미회,<br>한국창작사진협회, Salon ARS, 서울의대사진부, 현대사진연<br>구회 회원, 녹음 및 편집: 현대사진연구회 『사안』 편집실, 통<br>역: 김행오<br>26일, Bruce Downes 내한 세미나, 미국공보관                                                                                                                                                                                     | 일본 평범사 간행 『세계사진연감』 창간 10주년 기념<br>특집 『기록, 지난10년』에 조천용 작 〈모정〉<br>(1966) 수록<br>18-24일, 《박영숙 사진소품전》, 중앙공보관                                                                                    |
|      | 2월  | 월례회<br>(출품: 이강원, 이창환, 이창진, 윤문석, 박봉근, 서일성, 정철용, 박<br>원걸, 한정선, 심사: 이형록, 김행오, 이상규, 전몽각, 이영훈,<br>현대사연 간사)                                                                                                                                                                                                                                                                                   | 《제1회 동아국제사진살롱》에 이장호, 이창환, 박영<br>숙, 김응태, 이준근, 소수찬, 이창진 입선.                                                                                                                                 |
|      | 3월  | 『사안』 9호 발간                                                                                                                                                                                                                                                                                                                                                                              | ★ 현대사진연구회 각부별 회원 명단                                                                                                                                                                       |
|      | 12월 | 2일-7일, 《제4회 현대사진연구회전》, 중앙공보관<br>(출품: 정철용, 이창환, 이상도, 김선홍, 이호산, 박봉근, 백남식, 이<br>준근, 이창진, 김응태, 김원규, 김봉환, 오순자, 윤문석, 왕상<br>혁, 박원걸, 이정미, 이강원, 서일성, 박정수, 김효열)                                                                                                                                                                                                                                   | 회장 김선홍, 총무부-정철용, 이상도, 민경자, 이장<br>호, 김수연, 왕상혁, 김원규, 편집부-이창진,<br>이강원, 한득수, 김진권, 이정미, 권명광, 기획<br>부-이창환, 김응태, 조천용, 전승집, 이준근, 서<br>규영, 전민행, 서일성, 섭외부-백남식, 최방환,<br>박원걸, 이호산, 박봉근, 외국부-김효열, 김봉환. |

| 연도   | 일시  | '싸롱아루스'와 '현대사진연구회' 연혁                                                                                                                                                                     | 회원 활동 및 기타                                                                                                                                                                 |
|------|-----|-------------------------------------------------------------------------------------------------------------------------------------------------------------------------------------------|----------------------------------------------------------------------------------------------------------------------------------------------------------------------------|
| 1966 |     |                                                                                                                                                                                           | 소수찬, 한정선, 서무부-박영숙, 윤문석, 오순자,<br>황규태(재미중)                                                                                                                                   |
| 1967 |     |                                                                                                                                                                                           | 2월, 청록회 발족<br>지도위원: 임응식, 이명동, 정범태, 김행오<br>회장: 김선홍<br>회원: 이영훈, 주명덕, 김효열, 조천용, 김응태,<br>민경자, 박영숙, 윤문석, 오순자, 김선옥, 최방<br>환, 한정선, 박봉근, 이호성, 김봉환, 박제훈,<br>권명광, 소수찬, 김승원, 전용중, 장양환 |
| 1968 | 4월  | 28일-5월 2일, 《제5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신문회관<br>(출품: 이형록, 김원규, 김응태, 김홍기, 최원경, 박원걸, 박정수, 서<br>일성, 송치선, 신동석, 왕상혁, 오평, 이강원, 이상규, 이상도,<br>이준근, 이창진, 이창환, 정철용, 최경수, 한득수)                                 |                                                                                                                                                                            |
|      | 12월 | 9일-13일, 《제6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신문회관<br>(출품: 김원규, 김응태, 김창수, 박옥수, 박원걸, 박정수, 백남식, 신<br>동석, 왕상혁, 이강원, 이상규, 이상도, 이준근, 이창진, 정철<br>용, 최경수, 황규태, 이형록)                                                 |                                                                                                                                                                            |
| 1971 | 1월  | 8일, 제1월례회, 동화통신사 W.W.P. (20명 참석 48점 출품)<br>22일, 제2월례회, 동화통신사 W.W.P. (15명 참석 35점 출품)<br>31일, 촬영회                                                                                           |                                                                                                                                                                            |
|      | 2월  | 3일, 오후 6시, 임원회의, 주부생활사 사진부<br>회장 이창환, 지도고문 이형록, 이상규(4대 회장), 재정고문 김<br>원규, 박병식<br>5일, 『현대사연(現代寫研)』 창간(신문판형)<br>제1월례회, 동화통신사 W.W.P.<br>7일, 촬영회, 수원<br>16일, 제2월례회(제1차 전시작품 심사), 동화통신사 W.W.P. |                                                                                                                                                                            |
|      | 3월  | 7일-12일, 《제7회 현대사진연구회전》, 국립공보관<br>(출품: 이형록, 이상규, 김원규, 공영희, 김영인, 김응태, 김일홍, 남시<br>윤, 박경혁, 박옥수, 백남식, 신동석, 신재인, 오평, 이창진, 이용<br>선, 이창환, 정철용, 최경수, 최성호, 최호식, 황규태, 이상도)                           | 제7회전 작품제작 공동 작업장<br>A조 주부생활 사진부(조장 이창환 회장) / B조 고려<br>대학교 사진제작실(조장 정철용 부회장) / C조<br>국회 사진제작실(조장 이용선 회원)                                                                    |
| 1972 | 11월 | 21일-25일, 《제8회 현대사진연구회전》, 국립공보관<br>(출품: 이형록, 이상규, 김행오, 김원규, 신일순, 김영인, 김응태, 김<br>일홍, 김혜경, 박명희, 박영무, 박옥수, 백남식, 신동석, 오평,<br>이용선, 이창환, 이창진, 이철희, 정재필, 정철용, 고수남)                                |                                                                                                                                                                            |

## 참고 문헌 목록

## 현대사진연구회 관련

## 일간지

「현대사연월례회(現代寫研月例會)」, 『동아일보』, 1961.7.5.

「현대사연월례회(現代寫研月例會)」, 『동아일보』, 1961.7.6.

「문화소식」, 『동아일보』, 1961.9.3.

「알림」, 『동아일보』, 1961.11.7.

「알림」, 『동아일보』, 1961.12.28.

「일요안내」, 『경향신문』, 1962.2.4.

「전시」, 『동아일보』, 1962.2.4.

「허장 없어 호감」, 《현대사진연구전(現代寫眞研究展)》, 『경향신문』, 1962.2.6.

한일자, 「제시되어야할 과제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전》 평」, 『경향신문』, 1962.2.11.

「얼음의 예술, 눈의 예술」, 『경향신문』, 1963.1.19.

임응식, 「(사진평)깊은 심리적 공간 구성, 《현대사진연구회 제2회전》」, 『한국일보』, 1963.7.4.

이명동, 「비약하는 젊은 지성의 결정=《현대사진연구회 2회전》 평」, 『동아일보』, 1963.7.5.

「알림」, 『동아일보』, 1963.7.6

이경성, 「신선하고 의욕적인 자세, 《현대사진연구회전》을 보고」, 『경향신문』, 1963.7.8.

「교양미술강좌」, 『경향신문』, 1964.12.12.

「사진예술좌담회」, 『경향신문』, 1965.1.20.

「신간소개」, 『경향신문』, 1965.2.15.

「알림」, 『동아일보』, 1965.4.3.

「어린이가 ‘테마’, 《현대사진연구회전》」, 『동아일보』, 1965.8.17.

임응식, 「사진전시회 - 사실주의(寫實主義)로 선의 변질, 현대·뉴포토 클럽 등 세 사진 전시회」, 『신아일보』, 1966.12.8.

「《현대사진연구회전》」, 『동아일보』, 1968.4.30.

「문화단신」, 『경향신문』, 1968.5.1.

「《현대사진연구회전》」, 『경향신문』, 1971.3.8.

「《현대사진연구회원전》」, 『동아일보』, 1971.3.11.

「〈SUNSET〉(이선 작), 《현대사진연구회전》서」, 『조선일보』, 1971.3.12.

「현대사진연 전시회」, 『중앙일보』, 1971.3.13.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사진예술창작의 “집” 현대사진연구회」, 『국제공보』, 1266호, 1964.5.5.

「사안(제4호)」, 1964.9.

「사안(제5호)」, 1964.12.

「사안(제6호)」, 1965.2.

「사안(제7호)」, 1965.4.

「사안(제8호)」, 1965.

「사안(제9호)」, 1966.3.

김효열, 「푸른 화원 크립순례 <25>: 현대사진연구회」, 『여상』, 1965.11.

「(좌담회)고(故) 부르스 다운즈 씨와의 좌담회」, 『포토그래피』, 1966.8.  
「(좌담회)속(續) 고(故) 부르스 다운즈 씨와의 좌담회」, 『포토그래피』, 1966.9.

이경성, 「(논단 전람회평)시각의 실득-《제2회 창작사진전》 평」, 『사진예술』, 1966.9.

「(국내외 사단 뉴스-스)《제4회 현대사진연구회 발표전》」, 『포토그래피』, 1966.12.

「《제4회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전》에서」, 『사진예술』, 1967.1-2.

「(사진전평)《현대사연전》…작가의 의도표현에 충실」, 『사진예술』, 1967.1-2.

「(사단뉴스)현대사진연구회에 이상규 씨」, 『사진예술』, 1967.1-2.

「(사단뉴스)새 사진 클럽 ‘청록회’ 창립」, 『포토그래피』, 1967.3-4.

「현대사진연구회 소개」, 『포토그래피』, 1968.6.

서상덕, 「《현대사진연구회전》 평」, 『포토그래피』, 1968.6.

「《현대사진연구회 5회전》」, 『포토그래피』, 1968.6.

「(사진계 소식)《현대사진연구회 제6회전》」, 『포토그래피』, 1969.1.

「(화보)《청록회 사진전》에서」, 『카메라예술』, 1969.1-2.

「《현대사진연구회 제6회 회원전》에서」, 『카메라예술』, 1969.1-2.

「(국내외 사단 뉴스)《현대사진연구회 제6회 사진전》 개최」, 『카메라예술』, 1969.1-2.

「현대사연」(창간호), 1971.2.5.

「(사진계 소식)《현대사진연구회 제7회전》」, 『포토그래피』, 1971.4.

서상덕, 「방향 감각이 없는 사진들-초하의 사진전을 보고 느낀 일」, 『포토

그래피』, 1972.12.

「《제8회 현대사진연구회 전시회》중에서」, 『포토그래피』, 1972.12.

「(사진계 소식)《제8회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전》」, 『포토그래피』, 1972.12.  
최인진, 「한국 사진잡지의 역사 下-1」, 『한국사진』, 1999.8.

## 단행본/논문

조명원, 『'66 한국사진연감』, 한국사진문화사, 1966.

국립현대미술관 편, 「한국현대미술사(사진)」, 동화출판공사, 1978.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편, 「(2003년도)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21, 이형록」, 박주석 채록연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4.

『황규태』, 열화당 사진문고, 2005.

박주석, 『한국 기록사진의 형성과정 및 특성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유병용, 『1960년대 한국 사진의 ‘리얼리즘’에 관한 연구: 《동아사진콘텐츠》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진몽각』, 열화당 사진문고, 2013.

「한국사진사 구술프로젝트: 숙명여자대학교 사진부 숙미희 50년을 지나고」,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자료집 제6호』, 2013.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전》, 1962.2.4-2.9, 중앙공보관 제1화랑

[전시 팸플릿], 《제2회 현대사진연구회 회원전》, 1963.7.1-7.7,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3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1965.8.10-8.16,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4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1966.12.2-12.7,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5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1968.4.28-5.2,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6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1968.12.9-12.13,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7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1971.3.7-3.12, 국립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8회 현대사진연구회 사진전》, 1972.11.21-11.25, 국립공보관

[인쇄물], 전용중, 《현대사진연구회 1회전》 사진 및 설명, 2009.6.

[전시도록], 《한국사진의 역사전》, 1998.11.20-12.19, 예술의전당

[전시도록],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 1945-1994》, 1994.1.19.-2.11, 예술의전당

[전시도록], 《전몽각 그리고 윤미네집》, 2010.12.12-2011.2.19, 한미사진미술관

## 싸롱아루스 주요 인물별 자료 목록(가나다 순)

## 김행오

## 일간지

「[사진]〈빛나는 것은〉……김행오 작, 《US카메라 국제콘테스트》 입선작」, 『경향신문』, 1958.12.30.

「풍부한 소재와 색채감, 한여름의 활영 메모」, 『동아일보』, 1959.7.24.

「호영회 사진전시회」, 『동아일보』, 1959.8.24.

이경성, 「망각된 객관성, ‘호영회’ 창립전평」, 『동아일보』, 1959.8.28.

「[사진]임해촬영대회 입상작품, 특선2석 〈어떤 미소〉, 김행오(서울)」, 『서울신문』, 1960.9.8.

「싸롱아루스 사진전」, 『동아일보』, 1961.10.19.

「《쌀롱·아루스》전 25일까지 중앙공보관서」, 『경향신문』, 1961.10.23.

「형태에 대한 향수, 싸롱아루스 동인창립전을 보고」, 『동아일보』, 1961.11.2.

「우리아가·우리엄마 현상사진 결정」, 『경향신문』, 1962.5.5.

「〈애무〉 김행오 작(본사 현상모집 사진=가작)」, 『경향신문』, 1962.5.6.

「〈어기영차〉 김행오 작(본사 현상사진)=입선」, 『경향신문』, 1962.5.9.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사진작품들」, 『동아일보』, 1962.12.21.

「얼음의 예술 눈의 예술」, 『경향신문』, 1963.1.19.  
「늘어나는 ‘영예’, 《US카메라》 입상작, 5위 2점에 6위도 6점 추가」, 『동아일보』, 1963.7.2.

「사진 동인회 청록회 발족」, 『동아일보』, 1967.2.21.

서상덕, 「문제성이 없다,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전》 평」, 『동아일보』, 1967.4.4.

「《한·중·일 합동 사진전》, 『공간』지 창간 기념으로」, 『경향신문』, 1970.8.31.

「『공간』지 사진작품 공모」, 『동아일보』, 1970.9.5.

「《한-중-일 사진전》, 『공간』지 4돌 기념」, 『중앙일보』, 1970.9.11.

「《한-중-일 사진전》」, 『중앙일보』, 1970.9.16.

「(문화단신)《한·중·일 사진전》『공간』 창간 기념」, 『매일경제』, 1971.1.12.

「《한·중·일 사진전》 ‘현대와 전통’ 주제」, 『동아일보』, 1971.1.28.

김행오, 「전몽각 사진전 《윤미네 집》, 소박한 가정 생활을 ‘렌즈’에 부각」, 『중앙일보』, 1971.12.8.

\_\_\_\_\_, 「(사진)임응식 회고 작품전, 예리한 동적 카메라·아이, 살롱 위주 서 리얼리즘에」, 『한국일보』, 1972.11.24.

\_\_\_\_\_, 「재미교포 황규태 ‘칼라’ 사진전」, 『중앙일보』, 1973.1.18.

\_\_\_\_\_, 「사단의 양심과 사명감 《제3회 대한민국 사진전》에 제언한다」,

|                                                                |  |
|----------------------------------------------------------------|--|
| 『중앙일보』, 1973.9.12.                                             |  |
| <b>주간지/월간지/계간지</b>                                             |  |
| 「[사진]〈초상〉김행오 작 PORTRAIT by Kim Haeng Oh」, 『포토그래피』, 1966.8.     |  |
| 김행오, 「구도학, 포토그래피」, 『포토그래피』, 1966.9.                            |  |
| _____, 「“유진 · 스미스와 그의 작품”」, 『포토그래피』, 1966.9.                   |  |
| _____, 「(명작사진순례)Ken Heyman(미)」, 『사보중앙』, 1966.11.               |  |
| _____, 「(명작사진순례)Robert Capa」, 『사보중앙』, 1966.12.                 |  |
| _____, 「사진구도연구」, 『포토그래피』, 1966.12.                             |  |
| _____, 「사진구도의 연구(속)」, 『포토그래피』, 1967.1-2.                       |  |
| _____, 「작가와 작품-로버트 · 카파」, 『포토그래피』, 1967.3-4.                   |  |
| _____, 「사진구도의 연구(속)」, 『포토그래피』, 1967.3-4.                       |  |
| 「[사진]〈제3회 한국창협전〉에서, 〈초가마을〉김행오(서울)」, 『사진예술』, 1967.5.            |  |
| 김행오, 「작가와 작품-알프레트 · 스티그리츠」, 『포토그래피』, 1967.5-6.                 |  |
| _____, 「사진구도의 연구(속)」, 『포토그래피』, 1967.5-6.                       |  |
| _____, 「작가와 작품-미야카렛트 버어크화이트」, 『포토그래피』, 1967.7-8.               |  |
| _____, 「사진구도의 연구(속)」, 『포토그래피』, 1967.7-8.                       |  |
| _____, 「작가와 작품-고독한 예술가 유주논 · 아트웨이〈외젠 앗제〉」, 『포토그래피』, 1967.9-10. |  |
| _____, 「(사진수상(隨想))명작의 주변」, 『카메라예술』, 1968.8.                    |  |
| _____, 「(사진수상(隨想))명작의 주변 (4)」, 『카메라예술』, 1968.10.               |  |
| 「(부록)한국조형작가 인명록」, 『공간』, 1968.10-11.                            |  |
| 김행오, 「(사진수상(隨想))명작의 주변 (5)」, 『카메라예술』, 1968.11.                 |  |
| _____, 「(사진수상(隨想))명작의 주변」, 『카메라예술』, 1968.12.                   |  |
| _____, 「(공간시평-사진)David Duncan의 전쟁기록사진을 보고」, 『공간』, 1969.4.      |  |
| _____, 「(공간시평-사진)잡지의 화보」, 『공간』, 1969.5.                        |  |
| _____, 「(공간시평-사진)조형치 사진전 《동경》」, 『공간』, 1969.6.                  |  |
| _____, 「현대사진의 동향」, 『공간』, 1970.3.                               |  |
| _____, 「(공간시평-사진)주명덕 사진집 『섞여진 이름들』」, 『공간』, 1970.3.             |  |
| _____, 「(명작사진순례㉓ 임웅식(한국)」, 『사보중앙』, 1970.10.                    |  |
| 「한 · 중 · 일 연합사진전 《현대와 전통》」, 『공간』, 1971.1.                      |  |
| 「《현대와 전통》한 · 중 · 일 사진작가전」, 『공간』, 1971.1.                       |  |
| <b>인쇄물/기타</b>                                                  |  |

[전시 팸플릿], 《제1회 호영회 사진발표전》, 1958.8.24-8.31,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2회 국제진출작가 사진살롱》, 1962.12.24-12.30,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20-5.26,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3회 한국장작사진협회 회원전》, 1967.3.29-4.3, 중앙공보관

## 이상규

### 일간지

「《아마추어 이해촬영대회》입선작품 지상전시」, 『동아일보』, 1960.8.26.

「우리나라 사진예술-국제무대에 진출한 4점 《US카메라 콘테스트》에 입상」, 『동아일보』, 1961.6.30.

「형태에 대한 향수, 싸롱아루스 동인창립전을 보고」, 『동아일보』, 1961.11.2.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사진작품들」, 『동아일보』, 1962.12.21.

「얼음의 예술 눈의 예술」, 『경향신문』, 1963.1.19.

「이상규 씨 작 〈침식〉입선 호(濠) 《사우스 이스턴 예술제 국제 살롱》전」, 『동아일보』, 1963.5.28.

「늘어나는 ‘영예’, 《US카메라》입상작, 5위 2점에 6위도 6점 추가」, 『동아일보』, 1963.7.2.

「《제16회 국전》입선자 명단」, 『동아일보』, 1967.9.23.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사진]〈침식(侵蝕)〉」, 『포토그래피』, 1966.8.

이상규, 「《제5회 신인예술상》사진전시회 평」, 『포토그래피』, 1966.8.\_\_\_\_\_, 「세계명작해설: Thomas Höpker 철봉 위의 손」, 『포토그래피』, 1966.9.

「(이달의 사진작품)[사진]〈잠푸[점프]〉」, 『포토그래피』, 1966.9.

「중견작가경잡집 [사진]〈봄의 서곡〉」, 『카메라예술』, 1968.3.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2회 국제진출작가 사진살롱》, 1962.12.24-12.30,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

|                                                             |  |
|-------------------------------------------------------------|--|
| 참고 문헌 목록                                                    |  |
| <span></span>                                               |  |
| 20-5.26,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 |  |

## 이영훈

### 일간지

「세계의 각광 받은 ‘사실언어’」, 『동아일보』, 1963.6.27.

「늘어나는 ‘영예’, 《US카메라》입상작, 5위 2점에 6위도 6점 추가」, 『동아일보』, 1963.7.2.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이경성, 「의욕 넘친 자세대들, ‘창협’ 《제1회전》」, 『경향신문』, 1965.1.16.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More ROK Photographers Win International Fame in Contests,” *The Korean Republic Sunday Magazine*, 1963.7.14.

「《1963년도 유 · 에스 · 캐머러 콘테스트》입상작품 지상전」, 『캐머러세대』, 1964.8.

「특집화보(2) 어린이의 세계, 출처미상, 1966.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2회 한국미술가협회 미술전람회 (회원 및 공모전)》, 1961.4.27-5.14, 경북궁미술관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

20-5.26,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청록회 제1회 사진전》, 1967.6.6-6.12, 중앙공보관

### 일간지

「사진연구 ‘신선회’ 발족」, 『경향신문』, 1956.8.8.

「『US 카메라』지에 이형록 씨 작품 당선」, 『동아일보』, 1960.2.17.

「《쌀롱 아루스》전 25일까지 중앙공보관서」, 『경향신문』, 1960.10.23.

「우리나라 사진예술」, 『동아일보』, 1961.6.30.

「싸롱아루스 사진전」, 『동아일보』, 1961.10.19.

「형태에 대한 향수, 싸롱아루스 동인창립전을 보고」, 『동아일보』, 1961.11.2.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사진작품들」, 『동아일보』, 1962.12.21.

「《국제사진살롱》」, 『경향신문』, 1963.1.8.

「얼음의 예술 눈의 예술」, 『경향신문』, 1963.1.19.

「《동아사진콘테스트》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3.10.20.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5.6.21.

「《한국국제사진살롱》위원 명단」, 『동아일보』, 1965.11.6.

「《제1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6.2.8.

「내가 찍은 66년의 미녀」, 『경향신문』, 1966.11.7.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이달의 사진작품 [사진]〈해〉, 〈밤의 환각〉」, 『포토그래피』, 1966.8.

「중견작가경잡집 [사진]〈설경〉」, 『카메라예술』, 1968.3.

「한국의 현역 작가 작품선② 이형록」, 『월간중앙』, 1973.11.

최인진 「한국의 사진가㉑ 이형록 사진의 리얼리즘과 조형성」, 『영상』, 1981.1.

「원로작가 이형록의 작품세계」, 『영상』, 1982.9.

이명동, 「이형록 1950년대의 한국」, 『사진예술』, 1991.12.

### 단행본/논문

임영균, 「사진가와의 대화: 한국사진을 개척한 원로사진가 8인과의 대담」, 눈빛, 1998.

김한용, 『한국사진과 리얼리즘』, 눈빛, 2002.

이형록, 『이형록』, 한미사진미술관, 2005.

박평중, 『한국사진의 선구자들』, 눈빛, 2007.

이형록, 『이형록 사진집』, 눈빛, 2009.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2회 국제진출작가 사진살롱》, 1962.12.24-12.30,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20-5.26,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
| <b>전몽각</b>                                                      |
| <span></span>                                                   |
| <b>일간지</b>                                                      |
| 「얼음의 예술 눈의 예술」, 『경향신문』, 1963.1.19.                              |
| 「세계의 각광 받은 “사실언어”」, 『동아일보』, 1963.6.27.                          |
| 이명동, 「비약하는 젊은 지성의 결정=《현대사진연구회 2회전》 평」, 『동아일보』, 1963.7.5.        |
| 「《동아사진콘테스트》입선자 명단, 총87명」, 『동아일보』, 1963.10.29.                   |
|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
| 「《베를린 국제사진전》우리 작품 7점 입선」, 『동아일보』, 1965.1.16.                    |
| 「《제1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6.2.8.                        |
| 「사진 동인회 청록회 발족」, 『동아일보』, 1967.2.21.                             |
| 「《제3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8.2.22.                       |
| 김행오, 「전몽각 사진전 《윤미네 집》, 소박한 가정 생활을 ‘렌즈’에 부각」, 『중앙일보』, 1971.12.8. |
| 서상덕, 「일기쓰듯 사실미 듬뿍, 전몽각 사진전 《윤미네 집》」, 『서울신문』, 1971.12.11.        |
| 「[사진]」, 『THE SUNG KYUN TIMES』, 1974.10.25.                      |

|                                                                                                                      |
|----------------------------------------------------------------------------------------------------------------------|
| <b>주간지/월간지/계간지</b>                                                                                                   |
| “More ROK Photographers Win International Fame in Contests,” <i>The Korean Republic Sunday Magazine</i> , 1963.7.14. |
| 전몽각, 「르뽀르따쥬와 도큐멘타리」, 『포토그래피』, 1966.8.                                                                                |
| 「(사진시)만월」, 『사진예술』, 1966.9.                                                                                           |
| 「화란에서 전몽각」, 『포토그래피』, 1967.7-8.                                                                                       |
| 전몽각, 「사진과 수필-화란의 추림 [틀립]」, 『포토그래피』, 1967.11-12.                                                                      |
| 「소재는 언제나 우리 신변에 있다, 〈윤미네 집〉에 생각나는 일」, 『포토그래피』, 1972.1.                                                               |
| 전몽각, 「《윤미네 집》을 열고」, 『세대』, 1973.5.                                                                                    |
| 「현역작가 작품선-전몽각」, 『월간중앙』, 1974.8.                                                                                      |
| 전몽각, 「사진예술에 관하여」, 『대한토목학회지』, 1981.12.                                                                                |
| 「시와 사진의 대화, 달맞이」, 『영상』, 1981.12.                                                                                     |
| 「Yunmi's Album: From the Cradle to the Wedding」, 출처미상                                                                |
| <b>단행본/논문</b>                                                                                                        |
| 전몽각, 『일월호반에서』, 정우사, 1991.                                                                                            |

|                                                                 |
|-----------------------------------------------------------------|
| <b>인쇄물/기타</b>                                                   |
| [초대장], [[제1회 현대사진연구회] 초대장, 개인 제작], 1962년                        |
|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20-5.26,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한국사진협회 주최 《전국촬영대회 작품전》, 1963.7.23-7.29,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     |
| [전시 팸플릿], 《청록회 제1회 사진전》, 1967.6.6-6.12,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전몽각 사진전 Photo Essay ‘윤미네 집’》, 1971.12.7-12.12, 신세계화랑 |

|                       |
|-----------------------|
| <span>참고 문헌 목록</span> |
|-----------------------|

|                                                                                                                      |
|----------------------------------------------------------------------------------------------------------------------|
| <b>현대사진연구회 주요 인물별 자료 목록</b> (가나다 순)                                                                                  |
| <b>김선홍</b>                                                                                                           |
| <b>일간지</b>                                                                                                           |
| 「《동아사진콘테스트》입선자 명단, 총87명」, 『동아일보』, 1963.10.29.                                                                        |
|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
|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선자」, 『동아일보』, 1965.6.22.                                                                              |
| 「사진 동인회 청록회 발족」, 『동아일보』, 1967.2.21.                                                                                  |
| 서상덕, 「문제성이 없다,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전》 평」, 『동아일보』, 1967.4.4.                                                                  |
| <b>주간지/월간지/계간지</b>                                                                                                   |
| “More ROK Photographers Win International Fame in Contests,” <i>The Korean Republic Sunday Magazine</i> , 1963.7.14. |
| 「(이달의 사진작품)[사진]〈보선작업〉」, 『포토그래피』, 1966.9.                                                                             |
| 「[사진: 김선홍 〈가족들〉], 《제3회 한국창작사진가협회전》에서」, 『사진예술』, 1967.5.                                                               |
| <b>인쇄물/기타</b>                                                                                                        |
|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 1967.3.29-4.3,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청록회 제1회 사진전》, 1967.6.6-6.12, 중앙공보관                                                                        |
| <b>김응태</b>                                                                                                           |
| <b>일간지</b>                                                                                                           |
| 「김응태 씨 사진 입선 《국제사진살롱》서」, 『경향신문』, 1964.8.1.                                                                           |
|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
| 「《제1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6.2.8.                                                                             |
| 서상덕, 「문제성이 없다,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전》 평」, 『동아일보』, 1967.4.4.                                                                  |

|                                        |
|----------------------------------------|
| <b>주간지/월간지/계간지</b>                     |
| 「《제3회 신인예술상》입선작 지상전」, 『캐머러세대』, 1964.8. |
| 「[사진]〈백로〉」, 『포토그래피』, 1966.8.           |

|                                                             |
|-------------------------------------------------------------|
| <b>인쇄물/기타</b>                                               |
|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 |
| [전시 팸플릿],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 1967.3.29-4.3,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사진 12인전》, 1976.7.22-7.27, 미도파백화점 4층 화랑           |

|                                                               |
|---------------------------------------------------------------|
| <b>김효열</b>                                                    |
| <b>일간지</b>                                                    |
| 「우리나라 사진예술-국제무대에 진출한 4점 《US카메라 콘테스트》에 입상」, 『동아일보』, 1961.6.30. |
| 「늘어나는 ‘영예’, 《US카메라》 입상작, 5위 2점에 6위도 6점 추가」, 『동아일보』, 1963.7.2. |
|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
| <b>주간지/월간지/계간지</b>                                            |
| 「Photo Salon, [사진]〈Lumber〉 Kim Hyo-ryul」, 『한국화보』, 1961.       |
| 「《1963년도 유·에스·캐머러 콘테스트》입상작품 지상전」, 『캐머러세대』, 1964.8.            |
| <b>단행본/논문</b>                                                 |
| 『LANDSCAPE』, 시각, 1993.                                        |

|                                                       |
|-------------------------------------------------------|
| <b>인쇄물/기타</b>                                         |
| [전시 팸플릿], 《제2회 김효열 사진전》, 1975.5.22-5.27, 미도파백화점 4층 화랑 |

| 민경자                                                                             |  |
|---------------------------------------------------------------------------------|--|
| <span></span>                                                                   |  |
| <b>일간지</b>                                                                      |  |
| 「《5월 예술상》에 붙이는 제언」, 『경향신문』, 1962.3.1.                                           |  |
| 「렌즈가 잡은 초추의 정경, 《1회 촬영대회》 특선에 〈상념〉」, 『동아일보』, 1962.9.1.                          |  |
| 「향상된 작품 수준」, 『동아일보』, 1962.9.3.                                                  |  |
| 「세계의 각광 받은 “사실언어”」, 『동아일보』, 1963.6.27.                                          |  |
| 「우리 세 여대생 작품 입선, 서독 《국제사진콩테스트》서」, 『동아일보』, 1963.9.12.                            |  |
| 「국제전에 뽑힌 여대생 작품」, 『경향신문』, 1963.9.12.                                            |  |
| 「기대되는 뉴페이스, 여성잡지 카메라 기자 민경자 양, 국제전에 두번 입선 “인간의 집념과 표정을 추구”」, 『조선일보』, 1964.1.29. |  |
| 「《베를린 국제사진전》 우리 작품 7점 입선」, 『동아일보』, 1965.1.16.                                   |  |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  |
|------------------------------------------------------|--|
| 「《1963년도 유·에스·캐머러 콘테스트》 입상작품 지상전」, 『캐머러 세대』, 1964.8. |  |
| 「《제3회 초대작가 사진전》」, 『캐머러세대』, 1964.8.                   |  |
| 「이달의 사진《청록회 창립전》[사진]〈손녀〉」, 『포토그래피』, 1967.7-8.        |  |

| 인쇄물/기타                                                           |  |
|------------------------------------------------------------------|--|
| [전시 팸플릿], 《제2회 한국미술가협회 미술전람회 (회원 및 공모전)》, 1961.4.27-5.14, 경북공미술관 |  |
| [전시 팸플릿], 《제1회 숙미전》, 1962.12.3-12.9, 중앙공보관                       |  |

|                                                |
|------------------------------------------------|
| [전시 팸플릿], 《제2회 숙미전》, 1963.12.2-12.8, 수도화랑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제3회 숙미회 사진전》, 1965.4.20-4.26, 중앙공보관 |
| [전시 팸플릿], 《청록회 제1회 사진전》, 1967.6.6-6.12, 중앙공보관  |

### 박영숙

| 일간지                                           |  |
|-----------------------------------------------|--|
| 「《신인예술상》 경연, 오늘부터 사진부문 전시」, 『경향신문』, 1962.5.1. |  |
| 「사진으로 막 오른 연초의 화랑」, 『경향신문』, 1963.1.22.        |  |
| 「독자 사진 현상모집」, 『동아일보』, 1963.1.26.              |  |
|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6.2.8.     |  |

|                                                    |  |
|----------------------------------------------------|--|
| 「슬로우 셔터로 잡은 비오는 날…《청록회 창립전》에서」, 『경향신문』, 1967.6.12. |  |
|----------------------------------------------------|--|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  |
|-------------------------------------------------------------|--|
| 「신연재: 시와 사진① 창(窓)」, 『여상』, 1965.5.                           |  |
| 「신연재: 시와 사진② 가난한 이름들에게」, 『여상』, 1965.5.                      |  |
| 「편집실 낙서」, 『여상』, 1965.5.                                     |  |
| 「어느 여기자의 하루」, 『여상』, 1965.6.                                 |  |
| 「편집실 낙서」, 『여상』, 1965.6.                                     |  |
| 「시와 사진」, 『여상』, 1965.7.                                      |  |
| 「시와 사진④」, 『여상』, 1965.8.                                     |  |
| 「편집실 낙서」, 『여상』, 1965.8.                                     |  |
| 「시와 사진」, 『여상』, 1965.9.                                      |  |
| 박영숙, 「나의 제언-자발적인 적극참여」, 『사안(제8호)』, 1965.10.                 |  |
| 「시와 더불어 한국을 가다①」, 『여상』, 1965.10.                            |  |
| 「시와 더불어 한국을 가다」, 『여상』, 1965.11.                             |  |
| 「편집실 낙서」, 『여상』, 1965.11.                                    |  |
| 「시와 더불어 한국을 가다③」, 『여상』, 1965.12.                            |  |
| 「시와 더불어 한국을 가다④」, 『여상』, 1966.1.                             |  |
| 「시와 더불어 한국을 가다⑤」, 『여상』, 1966.2.                             |  |
| 「[사진: 박영숙 〈토요일의 젊은이〉], 《제3회 한국창작사진가협회전》에서」, 『사진예술』, 1967.5. |  |
| 「(이달의 사진)《청록회 창립전》[사진]〈나리는 날 A〉」, 『포토그래피』, 1967.7-8.        |  |

| 인쇄물/기타                                                        |  |
|---------------------------------------------------------------|--|
| [전시 팸플릿], 《제1회 숙미전》, 1962.12.3-12.9,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제3회 숙미회 사진전》, 1965.4.20-4.26,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화랑 |  |
| [전시 팸플릿],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 1967.3.29-4.3,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청록회 제1회 사진전》, 1967.6.6-6.12,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종합미술전》, 1968.1.22-2.10,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제4회 창작사진협회전》, 1968.6.6-6.12, 중앙공보관                 |  |

| 참고 문헌 목록      |  |
|---------------|--|
| <span></span> |  |

| 백남식                                                     |  |
|---------------------------------------------------------|--|
| <span></span>                                           |  |
| <b>일간지</b>                                              |  |
| 「《한미아마사진대회》 수상작품 발표」, 『동아일보』, 1965.5.29.                |  |
| 「렌즈의 향연 영예의 초점 《제4회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상작」, 『동아일보』, 1966.6.7.   |  |
| 「《제15회 국전》 입선자 명단」, 『동아일보』, 1966.10.8.                  |  |
| <span></span>                                           |  |
| <b>인쇄물/기타</b>                                           |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제4회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6.6.20-6.26, 신문회관 |  |

### 이상도

| 일간지                                                        |  |
|------------------------------------------------------------|--|
|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선자 명단, 총87명」, 『동아일보』, 1963.10.29.             |  |
| 「5월 《신인예술상》 사진 입선작 전시」, 『경향신문』, 1964.5.12.                 |  |
| 「《캐나다국제살롱》에 입선 ‘싱가폴’에선 7점이나」, 『동아일보』, 1964.7.18.           |  |
|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콩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  |
| 「(전시)이상도 사진전」, 『경향신문』, 1966.4.25.                          |  |
| 「티 없는 동심세계를 순화, 두 어린이 사진전」, 『동아일보』, 1966.5.5.              |  |
| 「《제15회 국전》 입선자 명단」, 『동아일보』, 1966.10.8.                     |  |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  |
|-----------------------------------------|--|
| 「《제3회 신인예술상》 입선작 지상전」, 『캐머러세대』, 1964.8. |  |
| 「[사진]〈둥) 이상도 작」, 『포토그래피』, 1966.8.       |  |
| 「(이달의 사진작품)[사진]〈강〉」, 『포토그래피』, 1966.9.   |  |

| 인쇄물/기타                                                      |  |
|-------------------------------------------------------------|--|
|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20-5.26,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한국사진협회 주최 《전국촬영대회 작품전》, 1963.7.23-7.29,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              |  |

|                                                  |  |
|--------------------------------------------------|--|
| 12.24, 신문회관                                      |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제1회 이상도 사진 개인전》, 1966.4.24-4.30, 예총화랑 |  |

| 이장호                                                        |  |
|------------------------------------------------------------|--|
| <span></span>                                              |  |
| <b>일간지</b>                                                 |  |
|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선자 명단, 총87명」, 『동아일보』, 1963.10.29.             |  |
|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콩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  |
| 「《제3회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선자」, 『동아일보』, 1965.6.22.                   |  |
|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6.2.8.                  |  |
| 「《제2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7.2.9.                  |  |
| 「《제3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8.2.22.                 |  |

| 단행본/논문                                                  |  |
|---------------------------------------------------------|--|
| 「[사진]〈삶〉」,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상작품집 제1집 1963-69』, 동아일보사, 1970. |  |

| 인쇄물/기타                                                      |  |
|-------------------------------------------------------------|--|
| [전시 팸플릿], 한국사진협회 주최 《전국촬영대회 작품전》, 1963.7.23-7.29,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콩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  |
|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
|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 |  |

## 이창진

| 일간지                                        |  |
|--------------------------------------------|--|
|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6.2.8.  |  |
| 「《제2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7.2.9.  |  |
| 「《제4회 국제사진살롱》 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9.2.11. |  |
| 「《국전》 2·4부 입상자」, 『동아일보』, 1974.4.22.        |  |
| 「이창진 사진전」, 『동아일보』, 1979.3.16.              |  |
| 「80년 《사진문화상》 수상자 확정」, 『매일경제』, 1980.2.11.   |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제3회 신인예술상》입선작 지상전, 『캐머러세대』, 1964.8.

이창진, 「예술로서의 사진의 길, 『포토그라피』, 1966.9.

\_\_\_\_\_, 「[사진]〈유(流)〉, 『포토그라피』, 1966.9.

\_\_\_\_\_, 「예술로서의 사진의 길, 『포토그라피』, 1966.10-11.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6회 신인예술상 사진 입선작품 전시회》, 1967.4.1-4.10, 예총회관화랑

## 이창환

**일간지**

「향상된 작품 수준, 『동아일보』, 1962.9.3.

「얼음의 예술 눈의 예술, 『경향신문』, 1963.1.19.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사진살롱 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3.5.1.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제1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6.2.8.

「《제3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8.2.22.

「《이창환 사진 초대전》, 『경향신문』, 1982.9.29.

「재미(在美) 사진작가 이창환 초대전, 『동아일보』, 1982.10.2.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More ROK Photographers Win International Fame in Contests,” *The Korean Republic Sunday Magazine*, 1963.7.14.

「나의 아이들, 이창환 작품집, 『세대』, 1970.5.

이형록, 「종말적인 물질문명의 허상들, 이창환 고국방문 《하오의 영상》전을 보고, 『영상』, 1982.11.

「고 이창환(1936.9.15~1983.5.12) 유작선 Ⅱ, 『영상』, 1984.7.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20-5.26,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동아일보사 주최 《제1회 국제사진살롱 입선작 전람회》, 1966.3.1-3.7, 신문회관

## 왕상혁

## 일간지

「《제2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7.2.9.

「《제16회 국전》입선자 명단, 『동아일보』, 1967.9.23.

「《제6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상작, 『동아일보』, 1968.6.18.

「《제17회 국전》입선작, 『동아일보』, 1968.9.28.

「《제4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9.2.11.

「다양한 앵글 생활의 영상 《제7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상작, 『동아일보』, 1969.6.10.

「《제5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70.2.26.

「찬스와 앵글 뽑아낸 영상 《8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상작, 『동아일보』, 1970.6.4.

「왕상혁 씨 시리즈 사진전, 『동아일보』, 1971.2.18.

「영상의 화음 《9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상작, 『동아일보』, 1971.6.7.

「《제2회 왕상혁 시리즈 사진전》, 『동아일보』, 1971.9.11.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제6회 신인예술상 입선작품전》에서, 〈첫인상〉 왕상혁(서울), 『사진예술』, 1967.5.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6회 신인예술상 사진 입선작품 전시회》, 1967.4.1-4.10, 예총회관화랑

## 정철용

## 일간지

「렌즈가 잡은 초추의 정경, 《1회 촬영대회》 특선에 〈상념〉, 『동아일보』, 1962.9.1.

「향상된 작품 수준, 『동아일보』, 1962.9.3.

### 참고 문헌 목록

「얼음의 예술 눈의 예술, 『경향신문』, 1963.1.19.

「특선에 황우중 작 〈5월〉《신록촬영대회》입상작 결정, 『동아일보』, 1964.7.9.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선자, 『동아일보』, 1965.6.22.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예총 경북지부 주최 《한국 제1회 국제사진싸롱》, 1963.5.20-5.26,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한국사진협회 주최 《전국촬영대회 작품전》, 1963.7.23-7.29,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 조친용

## 일간지

「고대(高大) 지리산 등반대 22일 출발 28일 귀환, 『경향신문』, 1960.7.21.

「산, 아아! 위대한 힘이어! 우주의 신비를 포용한 산아!, 『고대신문』, 1963.4.20.

「발자국이 남기고 간 밑어름, 『고대신문』, 1963.8.24.

「[사진]〈포도(鋪道)〉, 『고대신문』, 1963.9.21.

「놀리자 쳐들기에 굵은 것 퍼기에, 『고대신문』, 1963.11.2.

「찢어진 젊음의 깃발을 높이 꽂고, 『고대신문』, 1963.11.30.

「화요일 성난 지성의 오후, 『고대신문』, 1964.3.28.

「보라! 저기 등천하는 우리의 꿈울, 『고대신문』, 1964.5.9.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급박한 위험 무시 특선 〈모경〉…조친용, 『동아일보』, 1964.10.29.

「고궁의 초겨울, 『고대신문』, 1964.11.28.

「사진동우(東友) 임원 개선, 『동아일보』, 1964.12.22.

「창간 45주년 기념 8일부터 《동아종합예술제》, 『동아일보』, 1965.4.6.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선자, 『동아일보』, 1965.6.22.

「『지난 10년의 세계기록사진』에 우리나라 두 작가 작품 수록, 『동아일보』, 1967.6.24.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이달의 사진 작품)[사진]조친용 작 〈Still Life〉, 『포토그라피』, 1966.8.

「신인의 발언-‘카메라’ 구사로 생활을 미화할 터, 『사진예술』, 1966.9.

### 단행본/논문

「[사진]〈모경〉, 『《동아사진콘테스트》입상작품집 제1집 1963-69』, 동아일보사, 1970.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12.24,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청록회 제1회 사진전》, 1967.6.6-6.12, 중앙공보관

## 주명덕

## 일간지

「“제3의 극” ‘히말라야’에 또 하나의 도전, 가증캉 봉을 정복키로, 『경향신문』, 1963.3.15.

「세계의 각광 받은 “사실언어”, 『동아일보』, 1963.6.27.

「(전시), 『동아일보』, 1963.9.20.

「《동아사진콘테스트》입선자 명단, 총87명, 『동아일보』, 1963.10.29.

「카메라의 향연 영예의 수상작, 《제2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4.10.20.

「어린이들의 슬픈 이야기, 주명덕 씨의 사진전시회, 『경향신문』, 1965.1.9.

「(문화행사), 『동아일보』, 1965.1.12.

「《베를린 국제사진전》우리 작품 7점 입선, 『동아일보』, 1965.1.16.

「영국연감에 우리 사진, 『동아일보』, 1965.5.8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입선자, 『동아일보』, 1965.6.22.

「생동하는 사각(寫角), 《제3회 동아사진콘테스트》 지상전, 『동아일보』, 1965.6.26.

「(전시), 『경향신문』, 1966.4.23.

「또 하나의 사회문제, 혼혈아 성년, 『동아일보』, 1966.4.28.

「혼혈아를 주제로, 《주명덕 사진전시회》, 『중앙일보』, 1966.4.28.

「어린이를 주제로 한 두 사진전, 『경향신문』, 1966.4.30.

「티 없는 동심세계를 순화, 『동아일보』, 1966.5.5.

「(문화행사), 『동아일보』, 1966.12.6.

「《제2회 국제사진살롱》입상작품 결정」, 『동아일보』, 1967.2.9.

「(새 책)」, 『경향신문』, 1969.7.17.

「주명덕 사진집 『섞여진 이름들』」, 『경향신문』, 1969.8.2.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주명덕, 「하나로 뭉쳐야할 한국사단」, 『사안』, 1965.10

\_\_\_\_\_, 「초대작가사단 ㉔」, 『여성』, 1965.11.

\_\_\_\_\_, 「초대작가사단 ㉕」, 『여성』, 1966.1.

「《홀트씨 고아원 PHOTO ESSAY》전에서」, 『사진예술』, 1966.8.

「(전람회 순례)주명덕 씨」, 『사진예술』, 1966.8.

「성불사의 밤: 시와 더불어 한국을 가다 ㉙」, 『여성』, 1967.1.

「(사진시)눈이 오는 겨울, 그리고 사랑」, 『사진예술』, 1967.1-2.

「(이달의 사진)〈청록회 창립전〉[사진]〈포-트레이트〉」, 『포토그래피』, 1967.7-8.

「명시의 고향」, 「명작의 현장」, 「한국의 답」, 「소시민의 하루」, 「한국의 가족」,

「한국의 '메타모포시스'」 등 『월간중앙』 연재. 1968~1974.

「국토서정기행」, 「포토 에세이」, 「여(女)」 등 『세대』 연재. 1974~1978.

#### 단행본/논문

주명덕, 『명시의 고향: 주명덕 사진집』, 성문각, 1971

이기서 글, 주명덕 사진, 『강릉 선교장』, 열화당, 1980

#### 인쇄물/기타

[전시 팸플릿], 《사진 3인전(감관, 주명덕, 김승원)》, 1963.9.20~9.26,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2회 동아시아콘테스트 입선작품 전시회》, 1964.12.18-

12.24, 신문회관

[전시 팸플릿], 《제1회 창협전》, 1965.1.11-1.17,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PHOTO ESSAY 홀트씨 고아원》, 1966.4.24-4.29, 중앙

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3회 한국창작사진협회 회원전》, 1967.3.29-4.3, 중앙

공보관

[전시 팸플릿], 《청록회 제1회 사진전》, 1967.6.6-6.12,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종합미술전》, 1968.1.22-2.10,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제4회 창작사진협회전》, 1968.6.6-6.12, 중앙공보관

[전시 팸플릿], 《주명덕 사진전-헌사(獻寫)》, 1972.8.1-8.6, 신세계

화랑

#### 황규태

#### 일간지

「《신인예술상》경연, 오늘부터 사진부문 전시」, 『경향신문』, 1962.5.1.

「렌즈 통한 미국풍물, 《황규태 컬러 사진전》」, 『경향신문』, 1963.1.16.

「《제2회 신인예술사진상》결정, 특상에 이정강 작 〈소망(巢忙)〉, 수석

황규태·차석연 김희운 씨」, 『동아일보』, 1963.3.16.

「《신인예술상》사진부문 수상작 발표」, 『경향신문』, 1963.3.20.

「《신인예술상》수상자 결정, 문학 등 9개 부문, 20일에 시상」, 『경향

신문』, 1963.4.12.

「황규태 씨 작 〈숲 속의 아침〉」, 『경향신문』, 1963.6.26.

「세계의 각광 받은 “사실언어”」, 『동아일보』, 1963.6.27.

「《동아시아콘테스트》입선자 명단, 총87명」, 『동아일보』, 1963.10.29.

「(사고)견습기자 시험1차 합격자」, 『경향신문』, 1963.11.22.

「견습기자 합격자 명단」, 『경향신문』, 1963.12.4.

「재미교포 황규태 씨 칼라 사진전, 18~24일 신문회관 정물 등 60여점」,

『동아일보』, 1973.1.17.

김행오, 「재미교포 황규태 ‘칼라’ 사진전」, 『중앙일보』, 1973.1.18.

이명동, 「(사진평)황규태 사진전을 보고, 몽타즈 기법을 다양하게 실험,

반사진적인 독창적 양식 추구」, 『동아일보』, 1973.1.23.

「재미 사진작가 황규태 씨, 『포토그래피』지서 대서특필 “개인적 몽상세

계 조립”」, 『경향신문』, 1973.2.4.

#### 주간지/월간지/계간지

“More ROK Photographers Win International Fame in Contests,”

*The Korean Republic Sunday Magazine*, 1963.7.14.

「《1963년도 유·에스·캐머러 콘테스트》입상작품 시상전」, 『캐머러

세대』, 1964.8.

황규태, 「자연을 상실한 새들」, 『월간중앙』, 1971.8.

\_\_\_\_\_, 「조형공간의 초현실」, 『월간중앙』, 1973.2.

서상덕, 「뛰어난 발상으로 인생관 표현」, 『포토그래피』, 1973.2.

「(사진계 소식)《제1회 황규태 칼라 사진전》」, 『포토그래피』, 1973.2.

「(사진계 소식)황규태 일본에서 개인사진전」, 『포토그래피』, 1973.4.

#### 단행본/논문

황규태, 『원풍경: Hwang, Kyu Tae Photography』, 디자인하우스, 1994.

전민조, 『이 한장의 사진』, 행림출판, 1994.

황규태, 『블로우업-재해석한 1960년대』, 눈빛, 2002.

#### 인쇄물/기타

[팸플릿], 《제2회 신인예술상 종합 시상식》, 1963.4.20, 국립극장

